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44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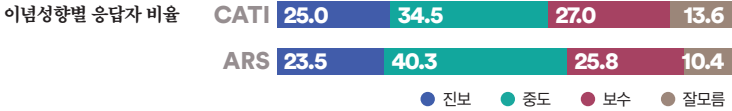
제59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0	100.0%	101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04	49.9	502	49.7	1.00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6	50.1	508	50.3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68	16.6	164	16.2	0.98				
응답률	11.2% [총 통화시도 9,020명]			30대	158	15.6	151	15.0	0.96				
조사기간	2023년 10월 27일 ~ 10월 28일(2일간)			40대	189	18.7	181	17.9	0.96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0	18.8	197	19.5	1.04				
				60대	169	16.7	173	17.1	1.02				
				70세 이상	136	13.5	144	14.3	1.06				
			지역	서울	195	19.3	189	18.7	0.97				
				인천·경기	326	32.3	323	32.0	0.99				
		대전·세종·충청		107	10.6	106	10.5	0.99					
		광주·전라		96	9.5	98	9.7	1.02					
		대구·경북		93	9.2	98	9.7	1.05					
		부산·울산·경남		154	15.2	152	15.0	0.99					
		강원·제주		39	3.9	44	4.4	1.13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4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25	52.3	498	49.6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9	47.7	506	50.4	1.06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만18~29세	118	11.8	163	16.2	1.38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2,820명]			30대	141	14.0	151	15.0	1.07					
조사기간	2023년 10월 27일 ~ 10월 28일(2일간)			40대	196	19.5	180	17.9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6	19.5	0.92					
				60대	187	18.6	172	17.1	0.92					
				70세 이상	148	14.7	142	14.1	0.96					
			지역	서울	191	19.0	188	18.7	0.98					
				인천·경기	311	31.0	320	31.9	1.03					
				대전·세종·충청	112	11.2	106	10.6	0.95					
				광주·전라	98	9.8	98	9.8	1.00					
				대구·경북	99	9.9	98	9.8	0.99					
				부산·울산·경남	150	14.9	151	15.0	1.01					
				강원·제주	43	4.3	43	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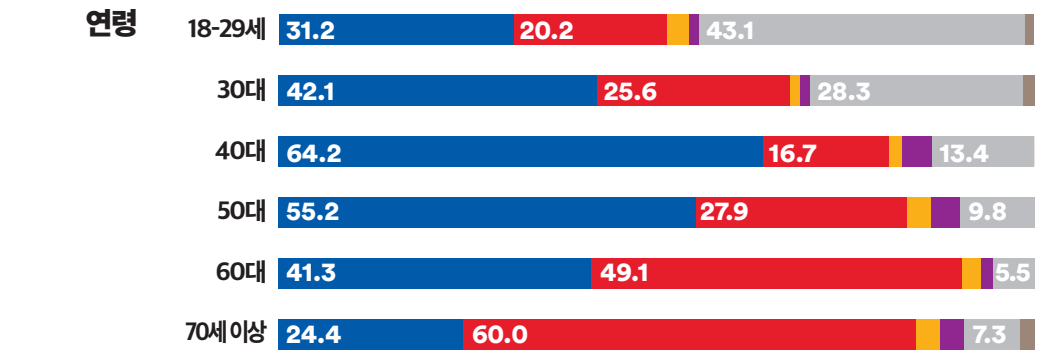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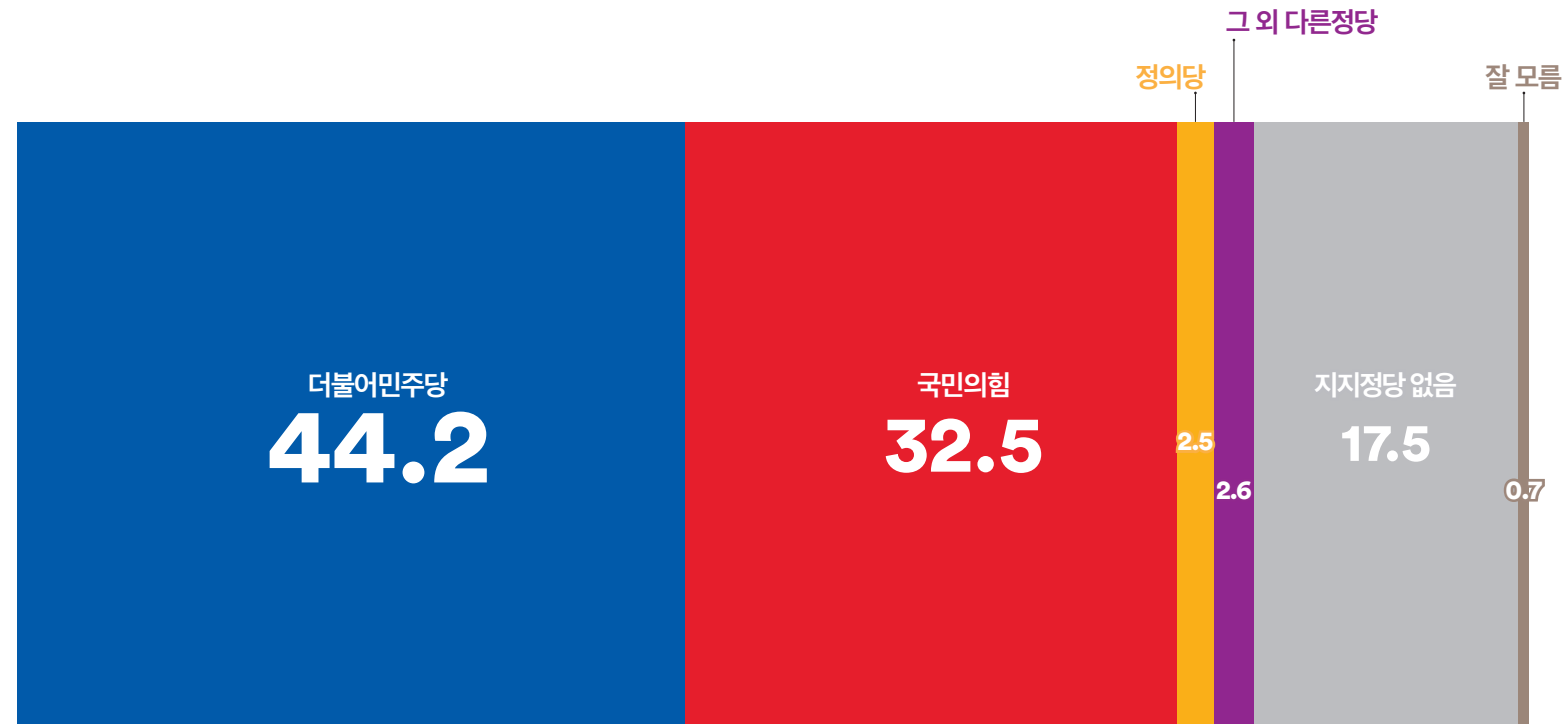
52.3%
남성

47.7%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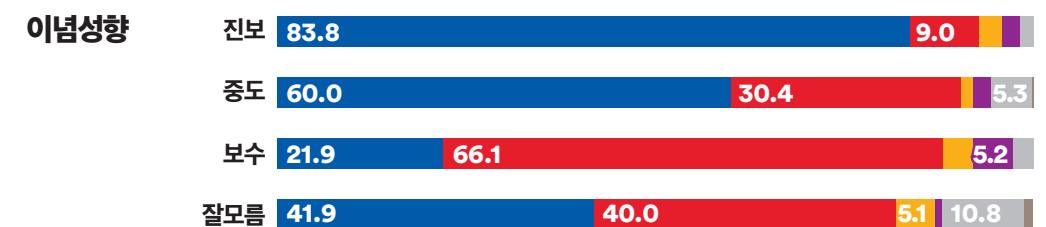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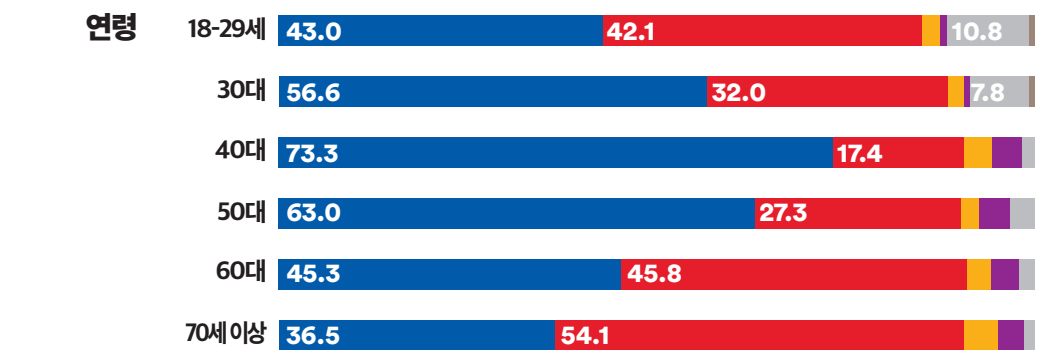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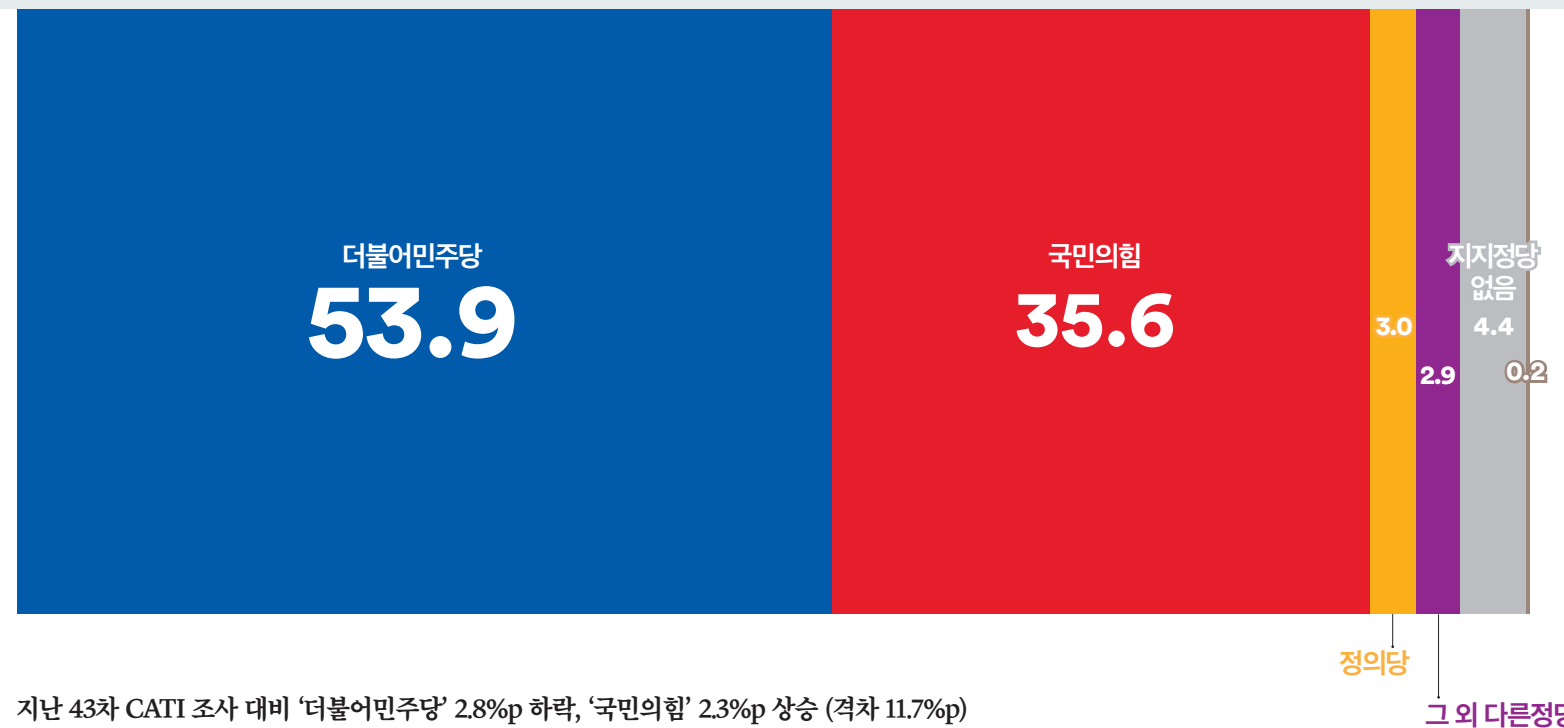
19.0%
31.0%
11.2%
9.9%
9.8%
14.9%
4.3%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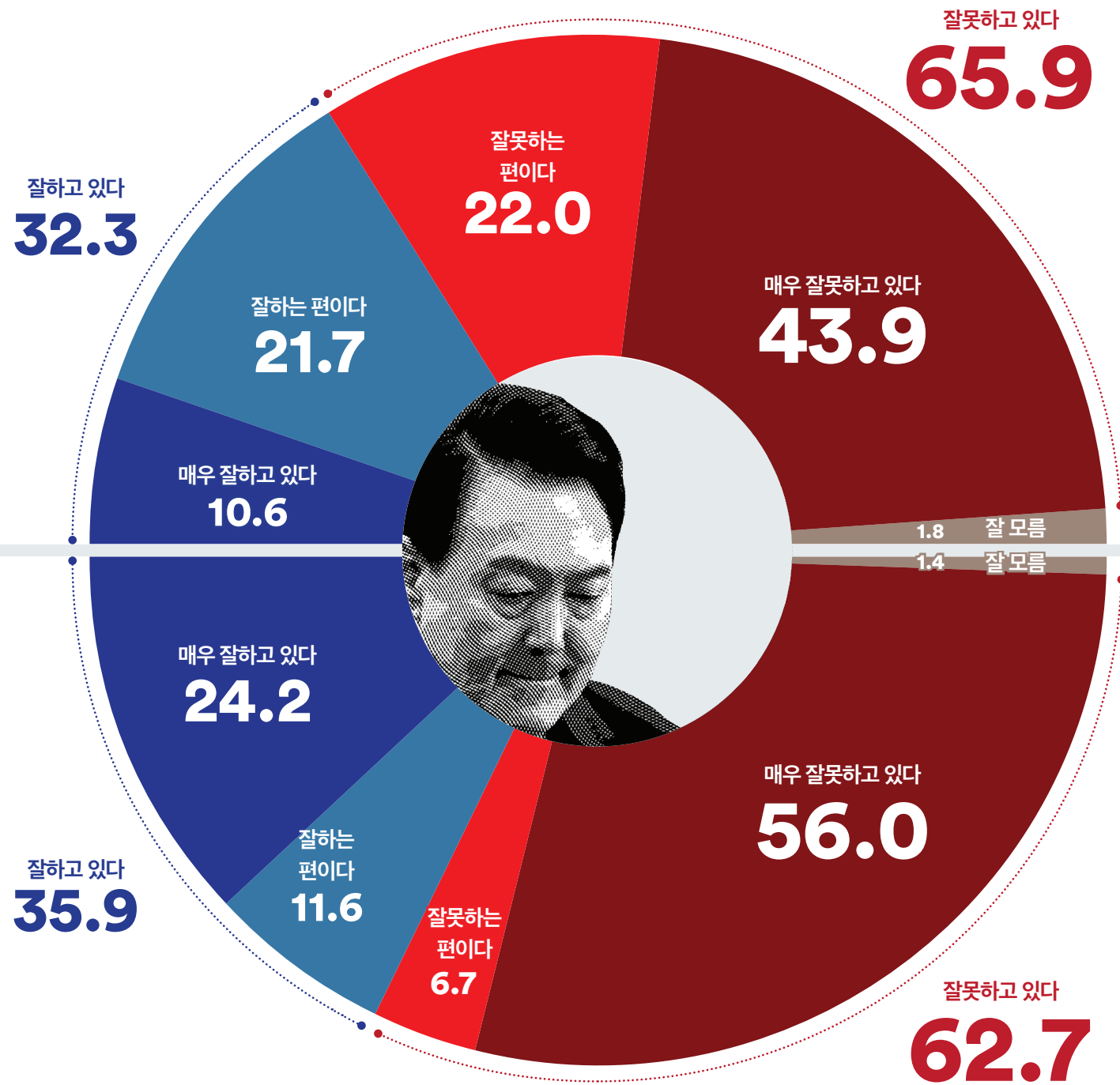


지난 43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8%p 하락, '국민의힘' 2.3%p 상승 (격차 11.7%p)
 지난 58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상승, '국민의힘' 1.0%p 상승 (격차 18.3%p)
 두 조사 모두 30~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우세
 경인, 호남(CATI 서울 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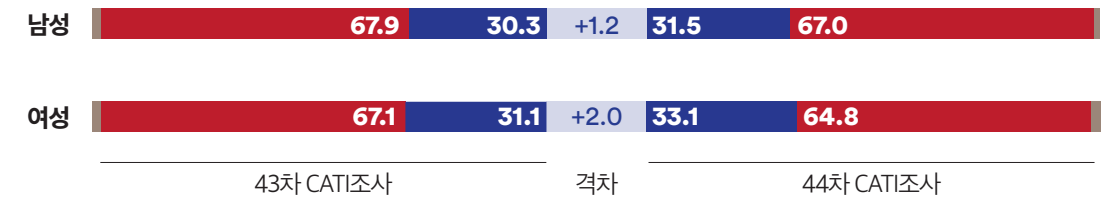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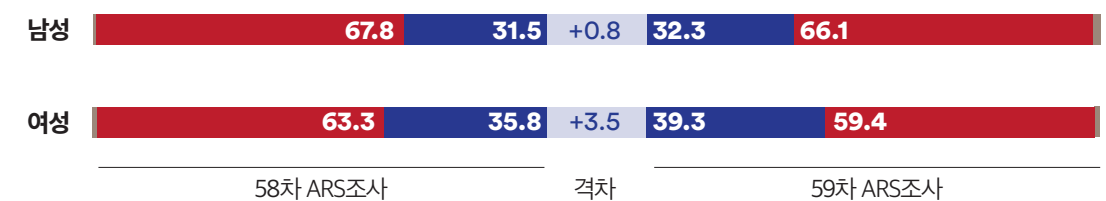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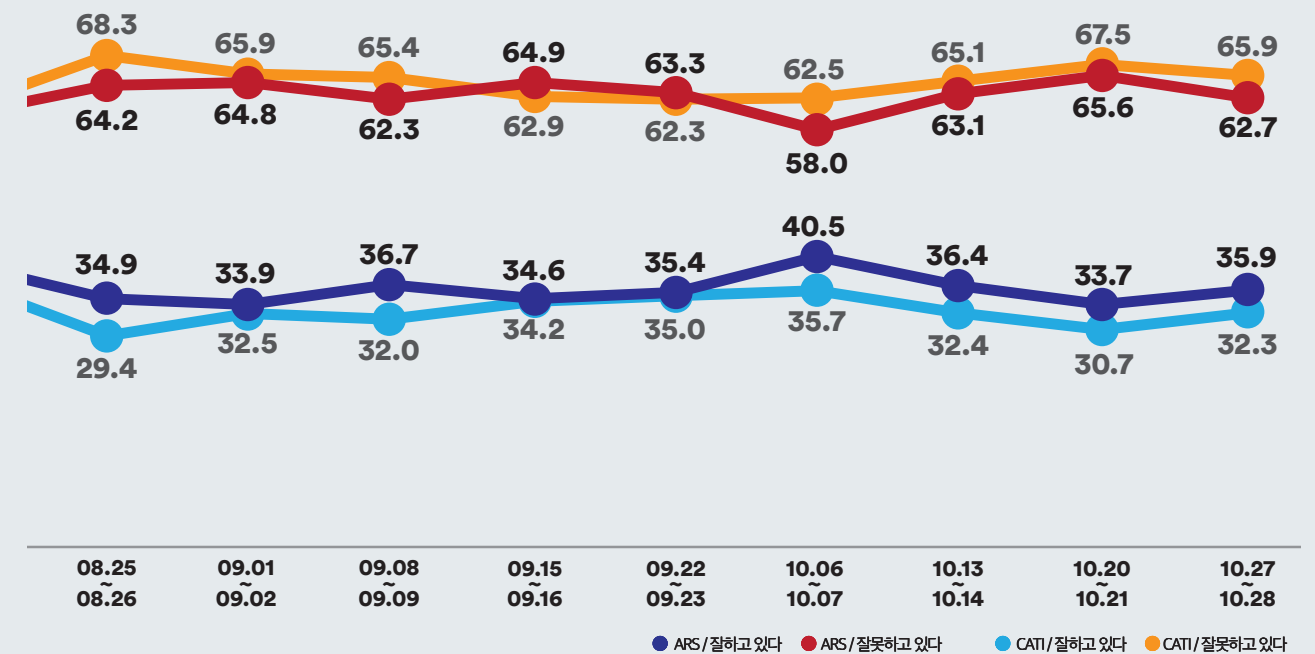
CATI



지난 43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6%p 상승, '부정'평가 1.6%p 하락 (격차 33.6%p)
 지난 58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2%p 상승, '부정'평가 2.9%p 하락 (격차 26.8%p)
 수도권, 호남, PK(CATI 충청권 포함)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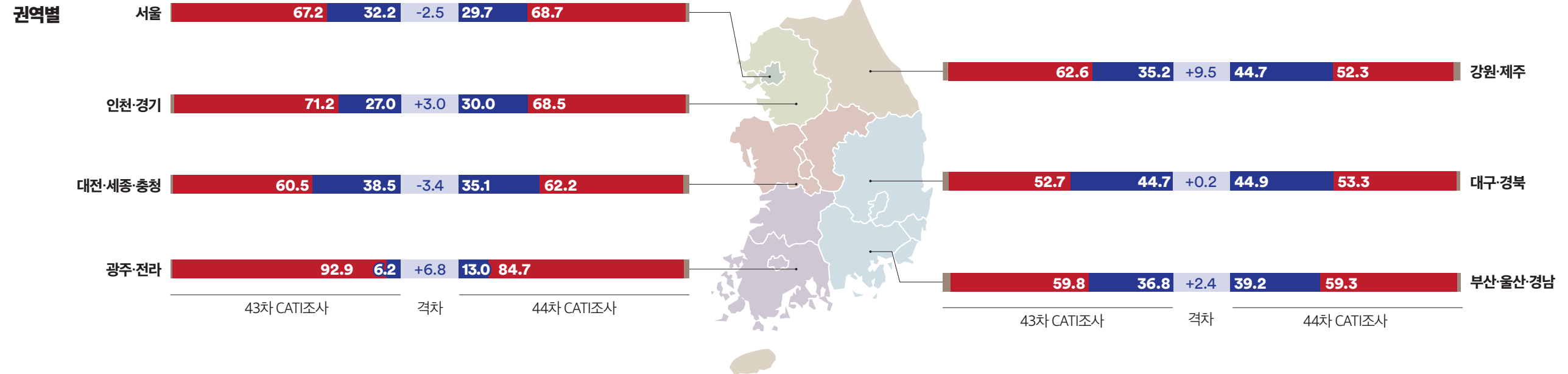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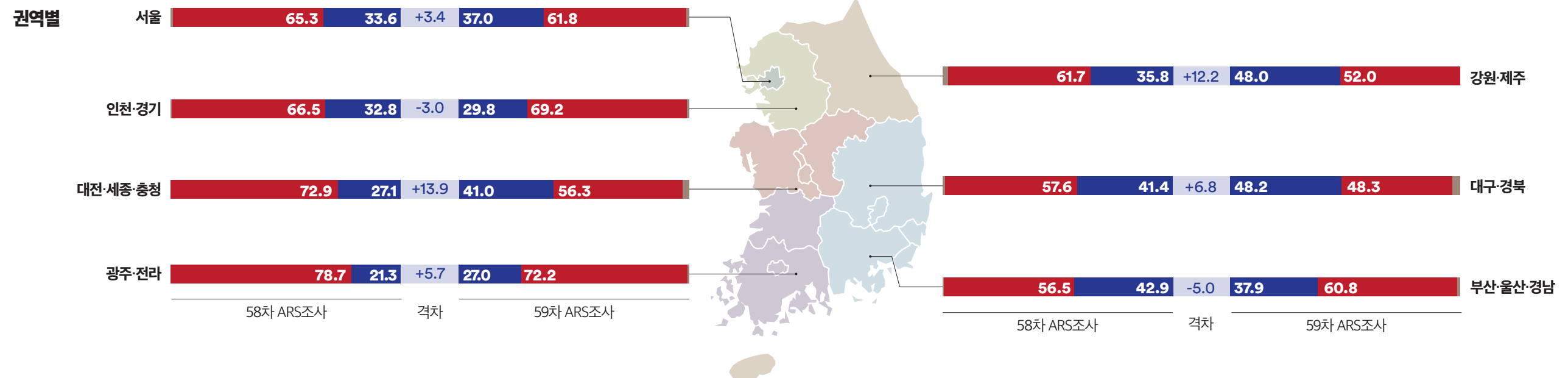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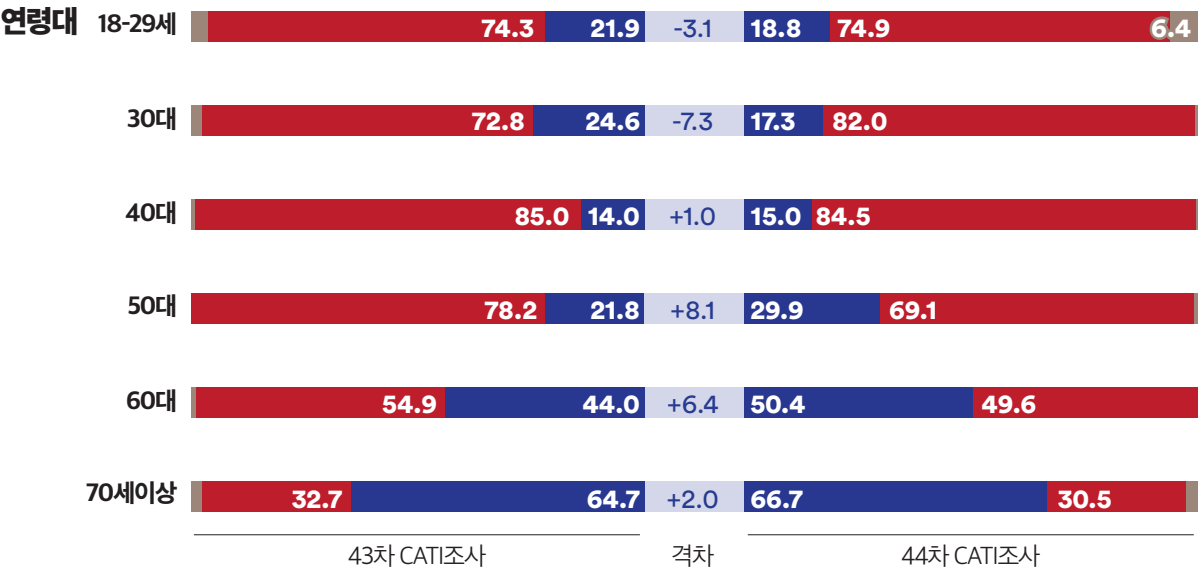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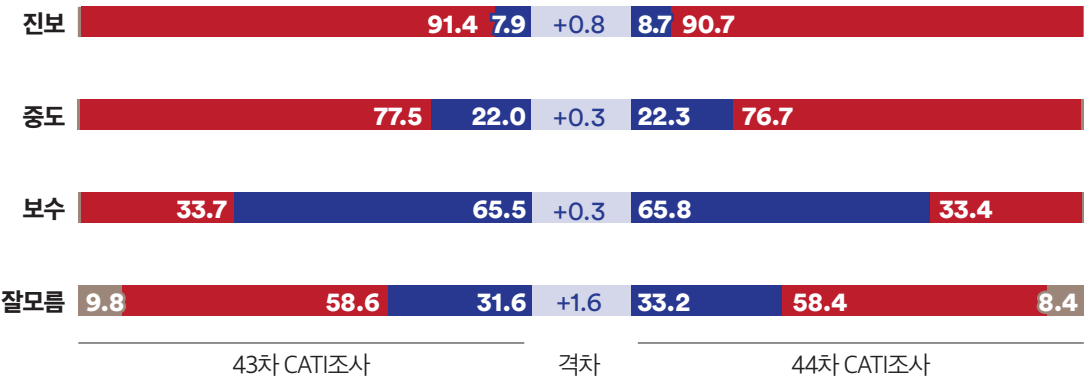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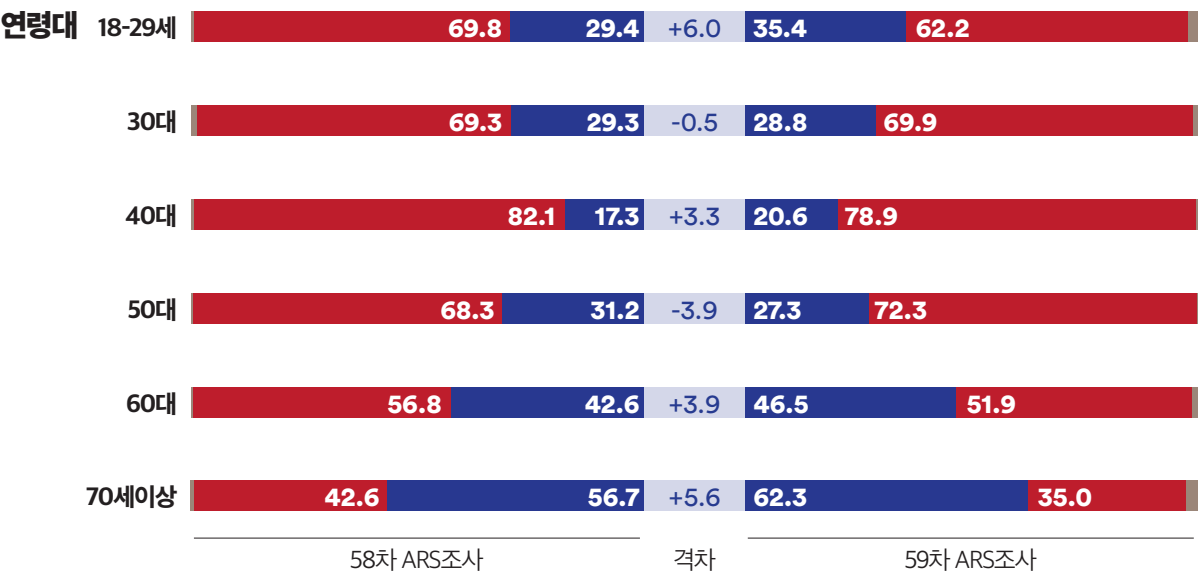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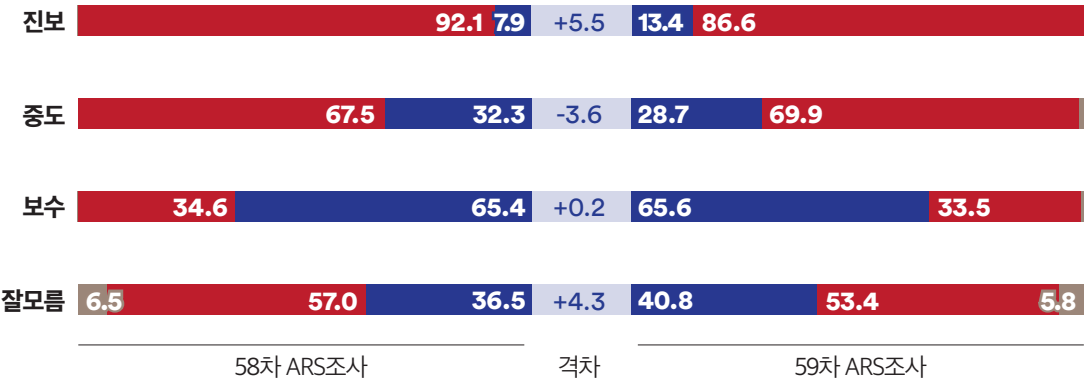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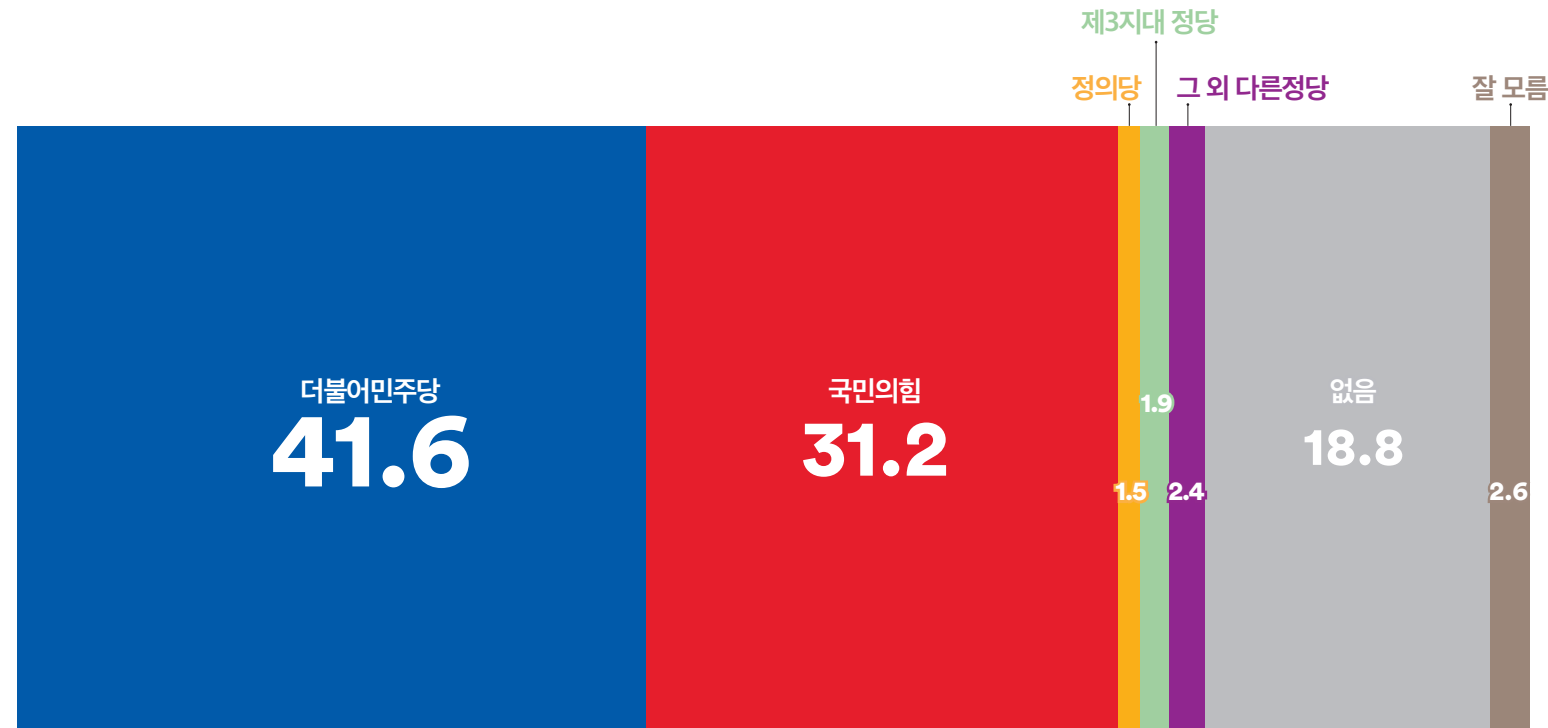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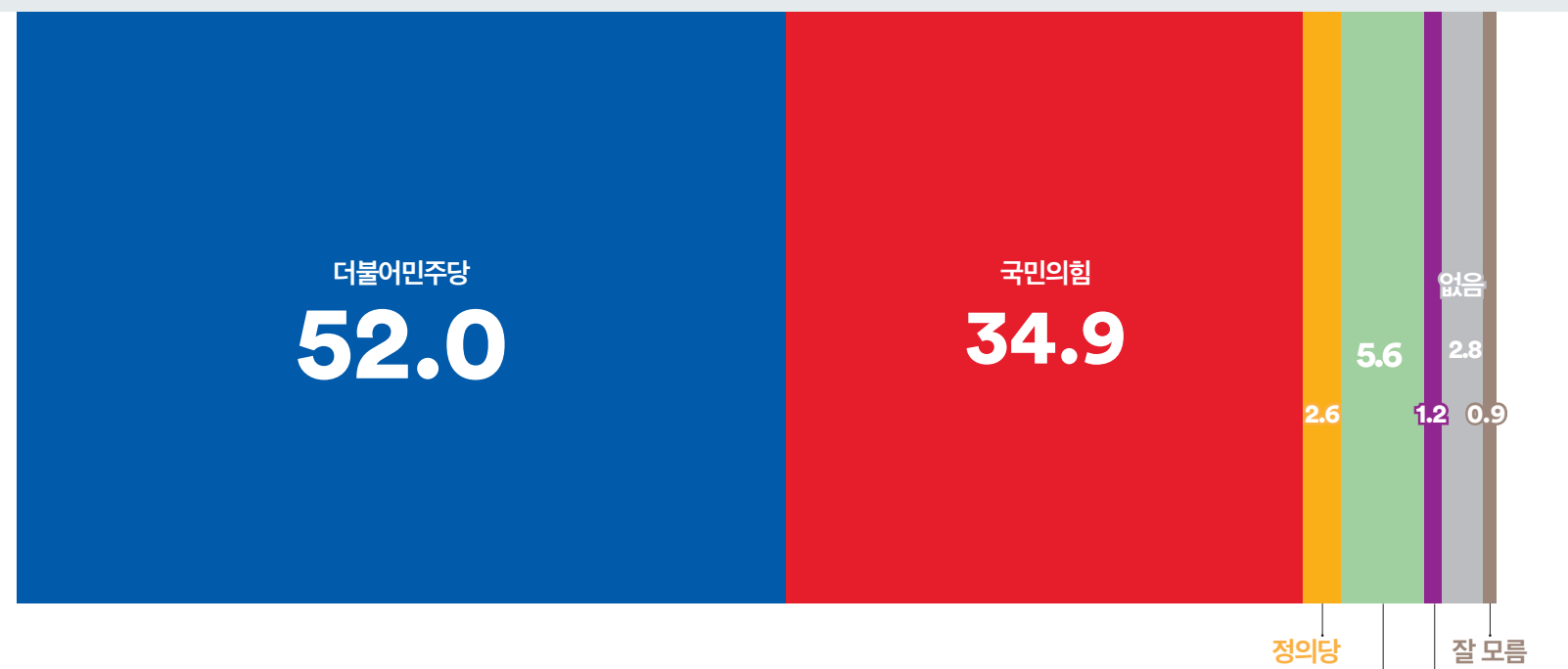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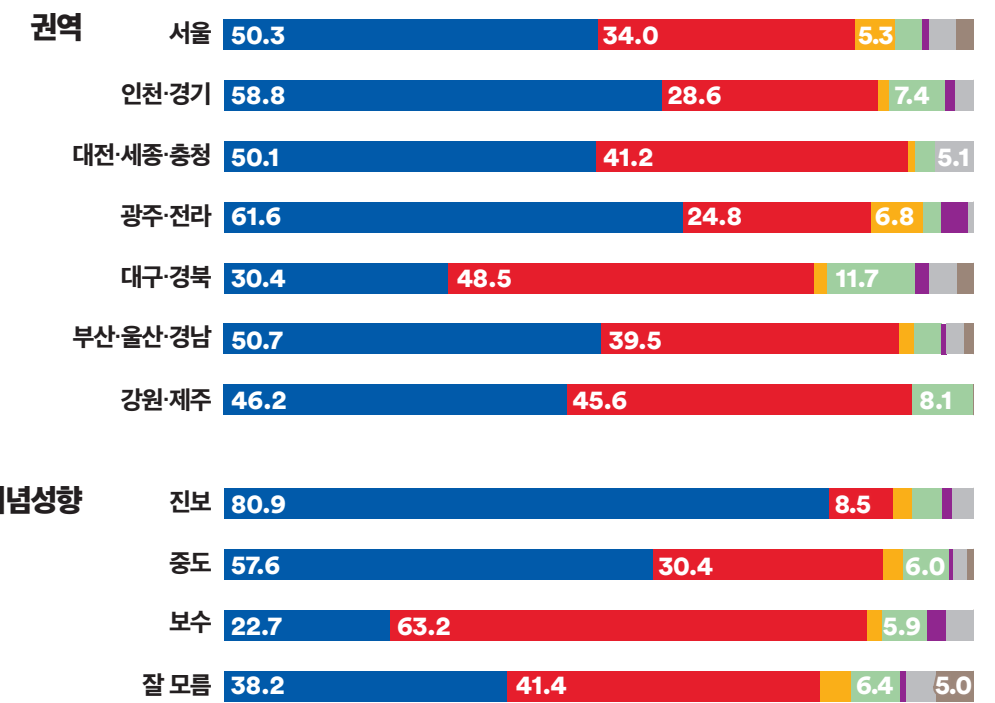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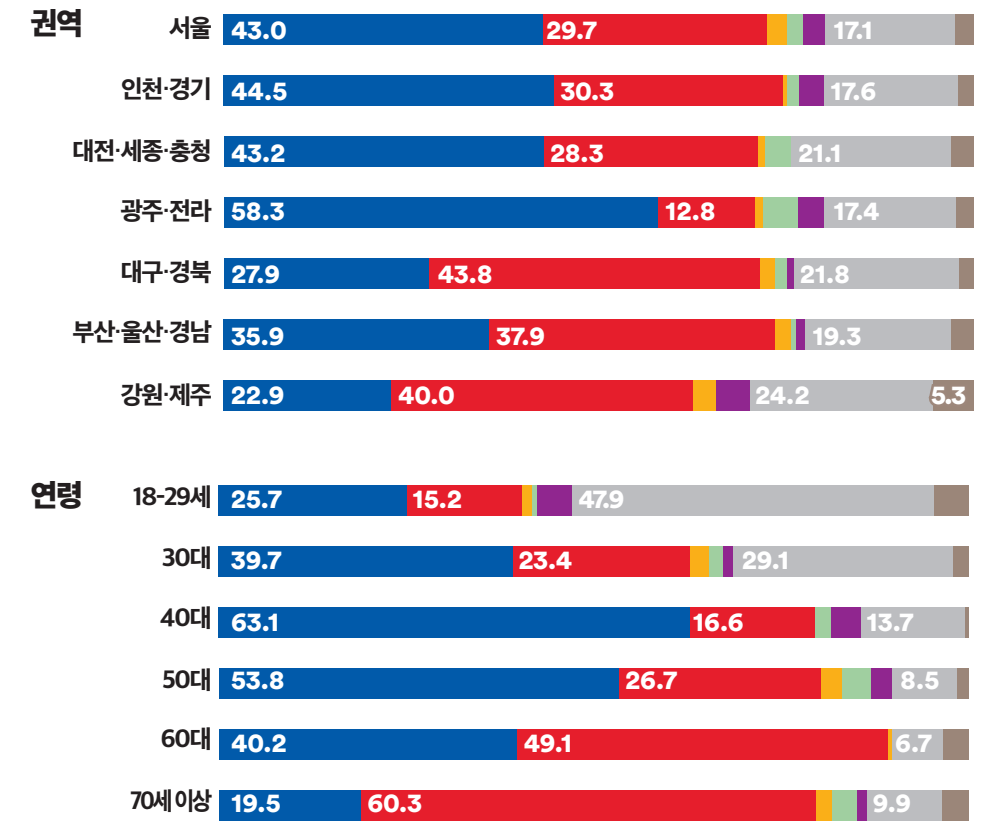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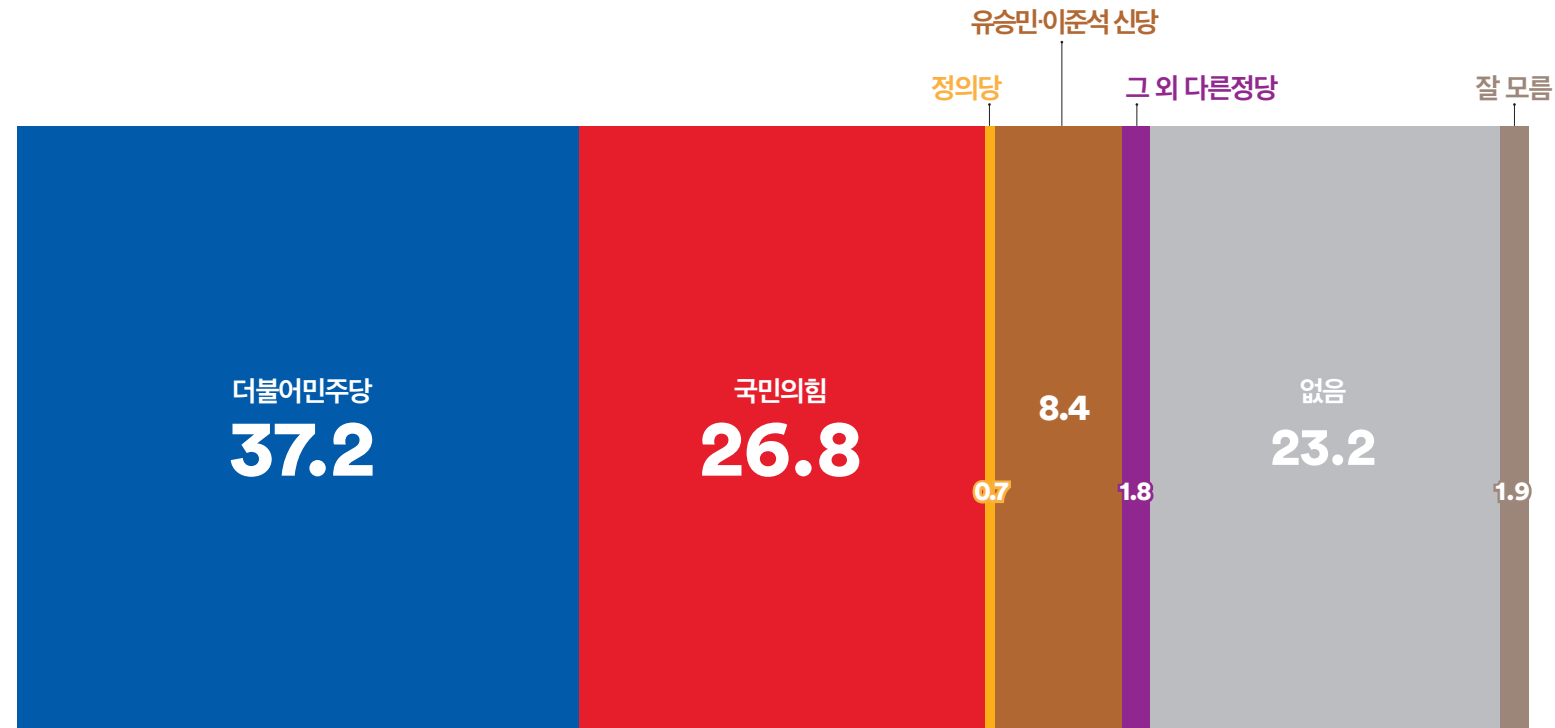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양당 간 격차: CATI 10.4%p, ARS 17.1%p)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 우세
남·녀 모두 30-50대는 '더불어민주당 승리'우세,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승리'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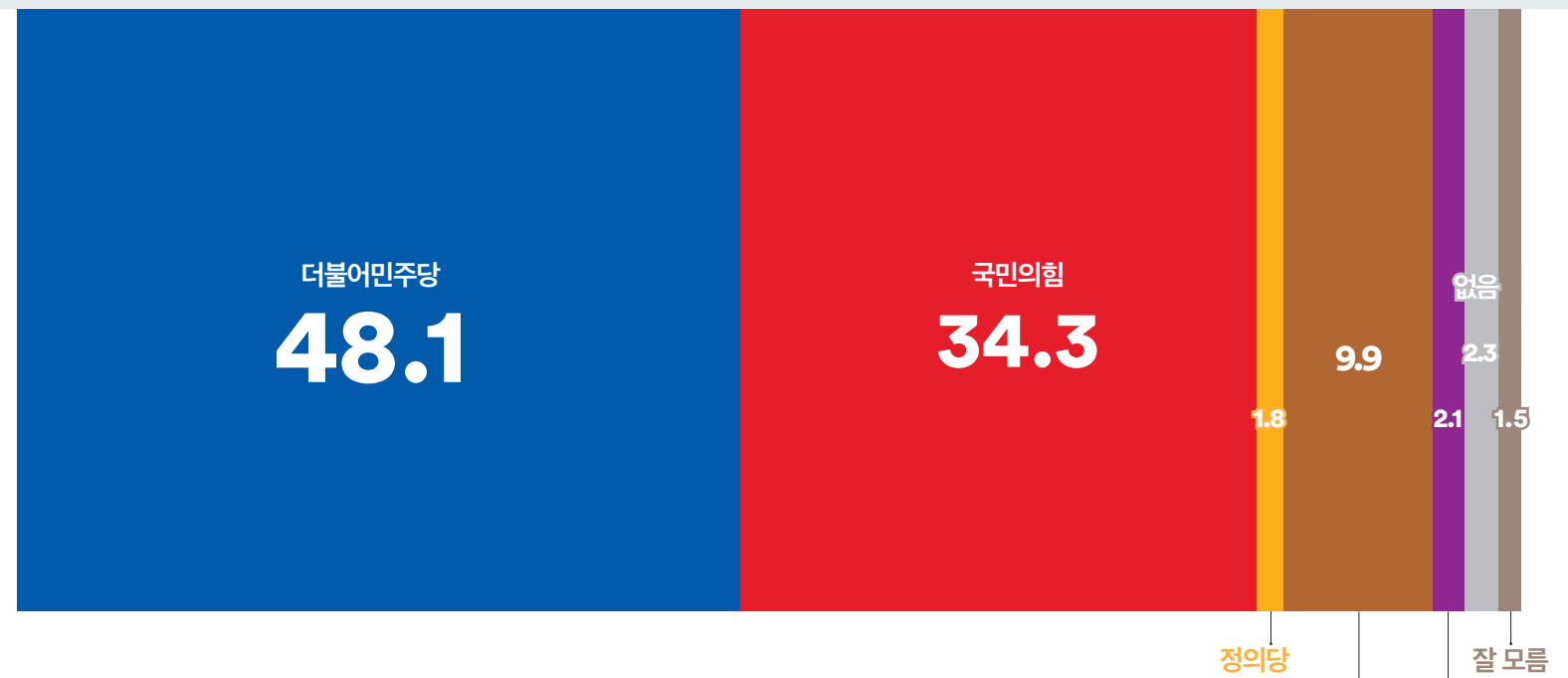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제3지대 정당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Q. 정치권이 만약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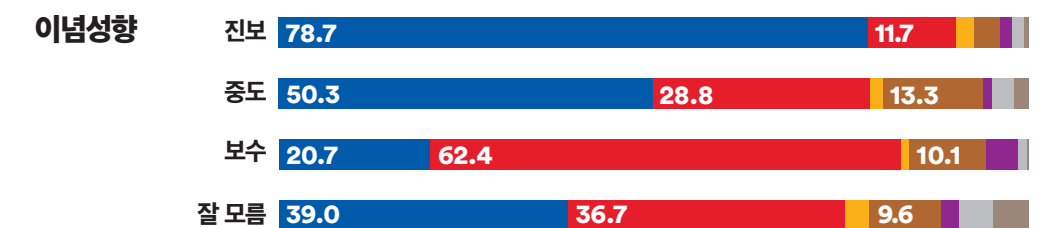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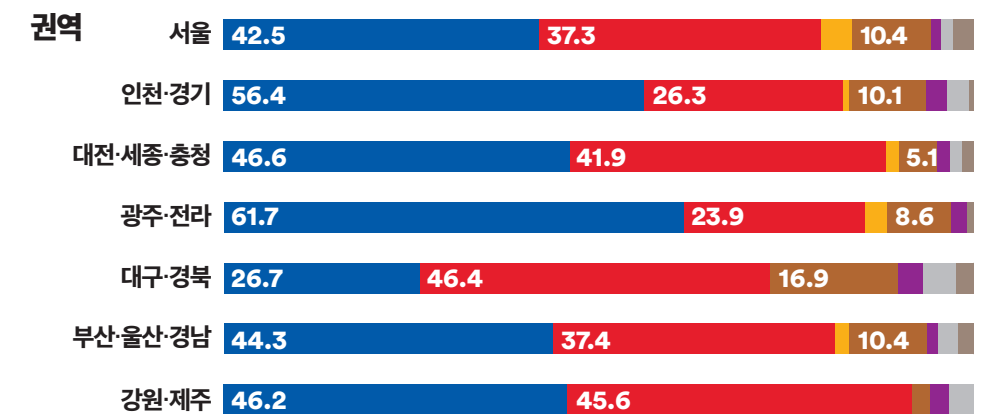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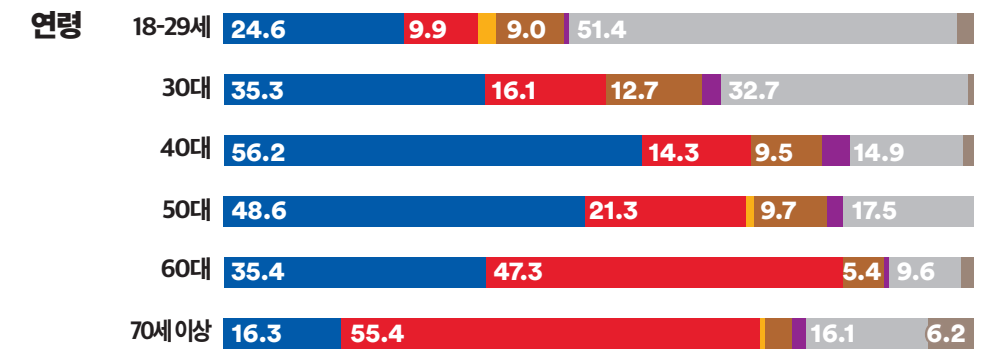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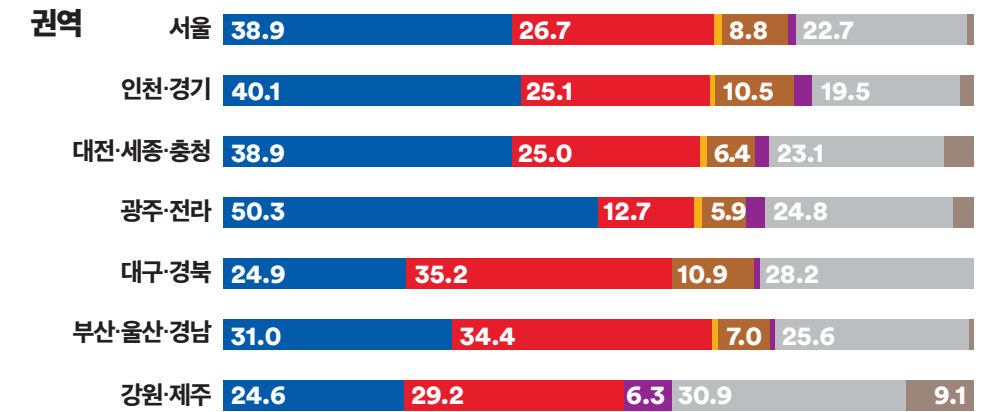
CATI



ARS



정당 지지도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CATI 7.6%p, ARS 8.8%p가 '유승민·이준석 신당'으로 이동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8.4%p, ARS 7.4%p가 '유승민·이준석 신당'으로 이동
'유승민·이준석 신당'은 18-29세·30대의 남성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임
(CATI 30대 남성 20.6%, 18-29세 남성 14.9% / ARS 30대 남성 15.5%, 18-29세 남성 26.7%)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유승민·이준석 신당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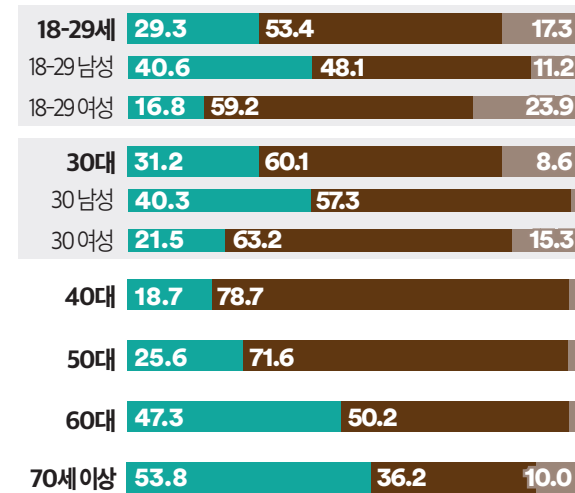
Q.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귀하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지할 것이다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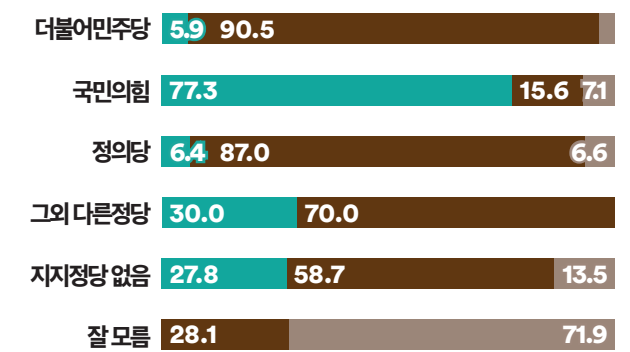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59.5

잘 모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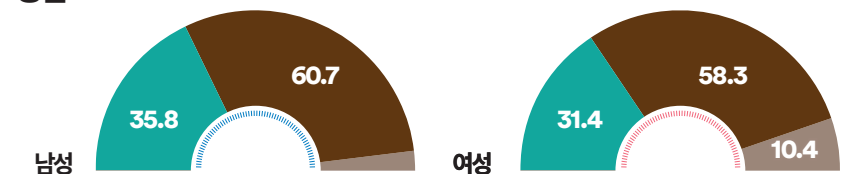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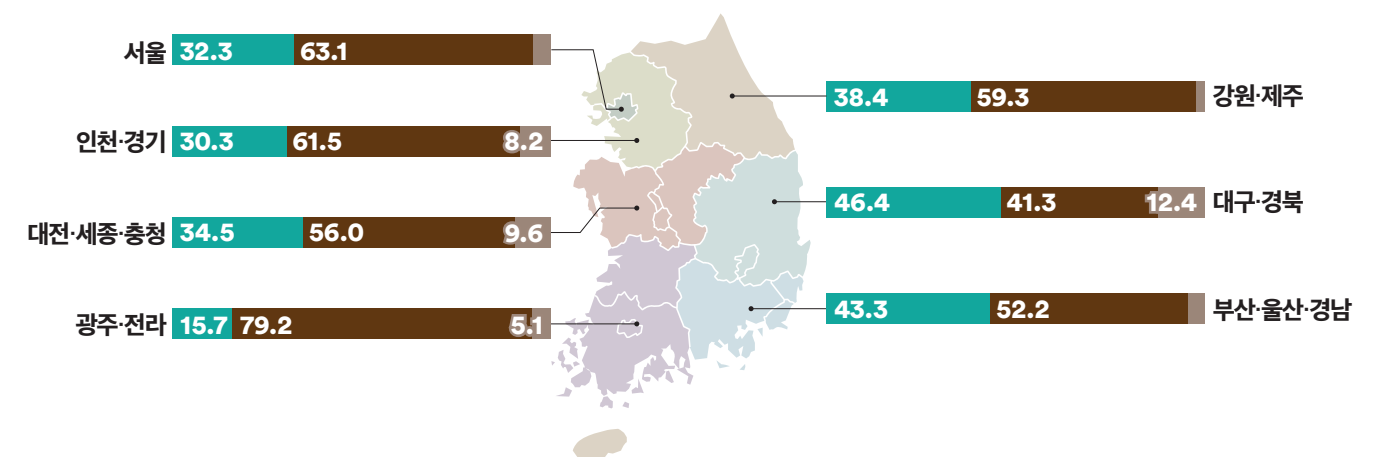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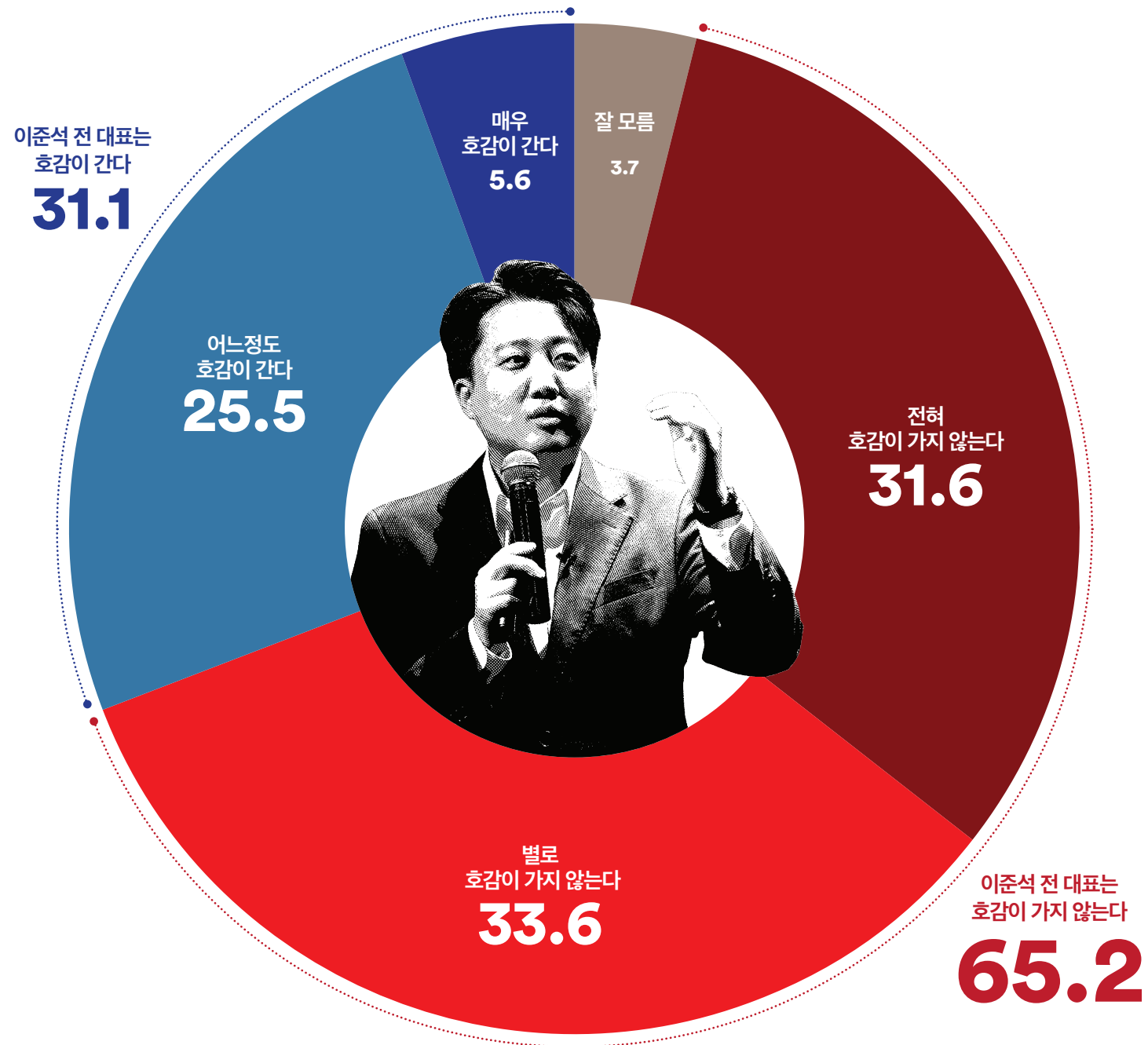
권역



10명 중 6명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 우세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에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앞섬(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지지하지 않을 것',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지지할 것'이란 응답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면 지지할 것이다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Q.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
 모든 성별·연령대·지역별 변수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이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30대 남성층에서 46.9%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음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진보·중도층보다 보수층(비호감 72.2%, 호감 26.3%)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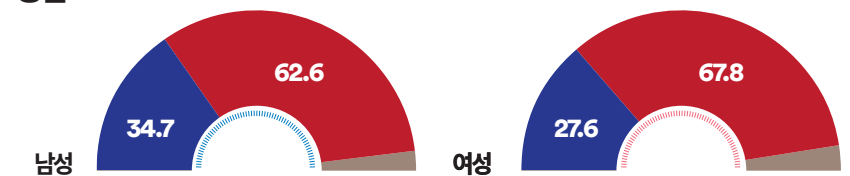
연령

18-29세	26.0	64.0	10.1
18-29 남성	33.5	56.2	10.3
18-29 여성	17.7	72.5	9.8
30대	35.0	61.7	
30 남성	46.9	52.0	
30 여성	22.4	72.1	5.5
40대	32.2	66.3	
50대	27.4	71.7	
60대	34.4	63.7	
70세이상	32.6	61.7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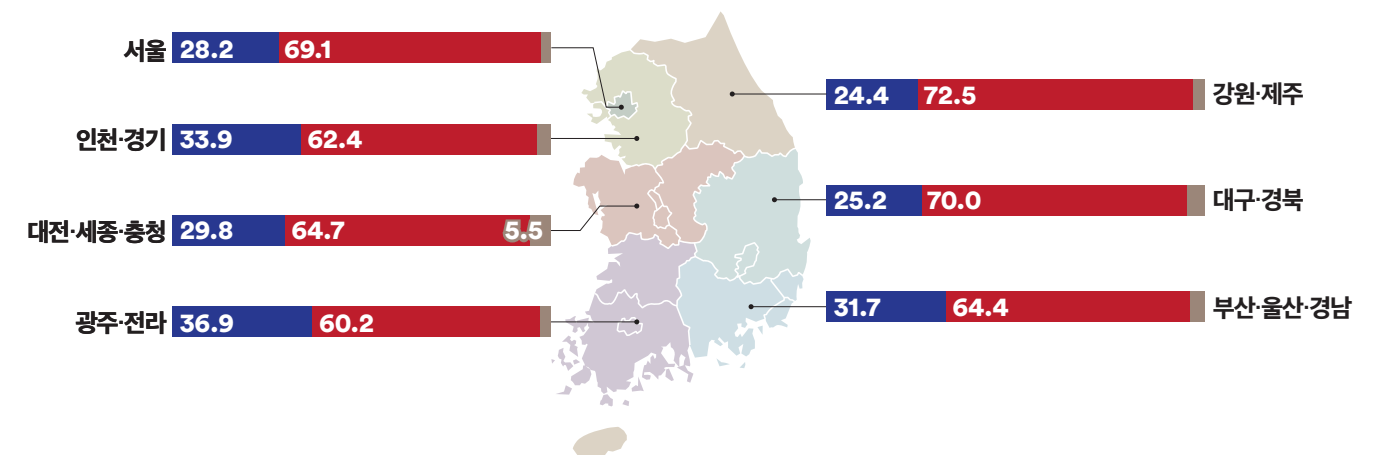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2	64.0	
국민의힘	29.4	68.5	
정의당	56.8	40.6	
그외 다른정당	18.8	77.6	
지지정당 없음	25.4	65.8	8.8
잘 모름	14.8	16.2	69.0

성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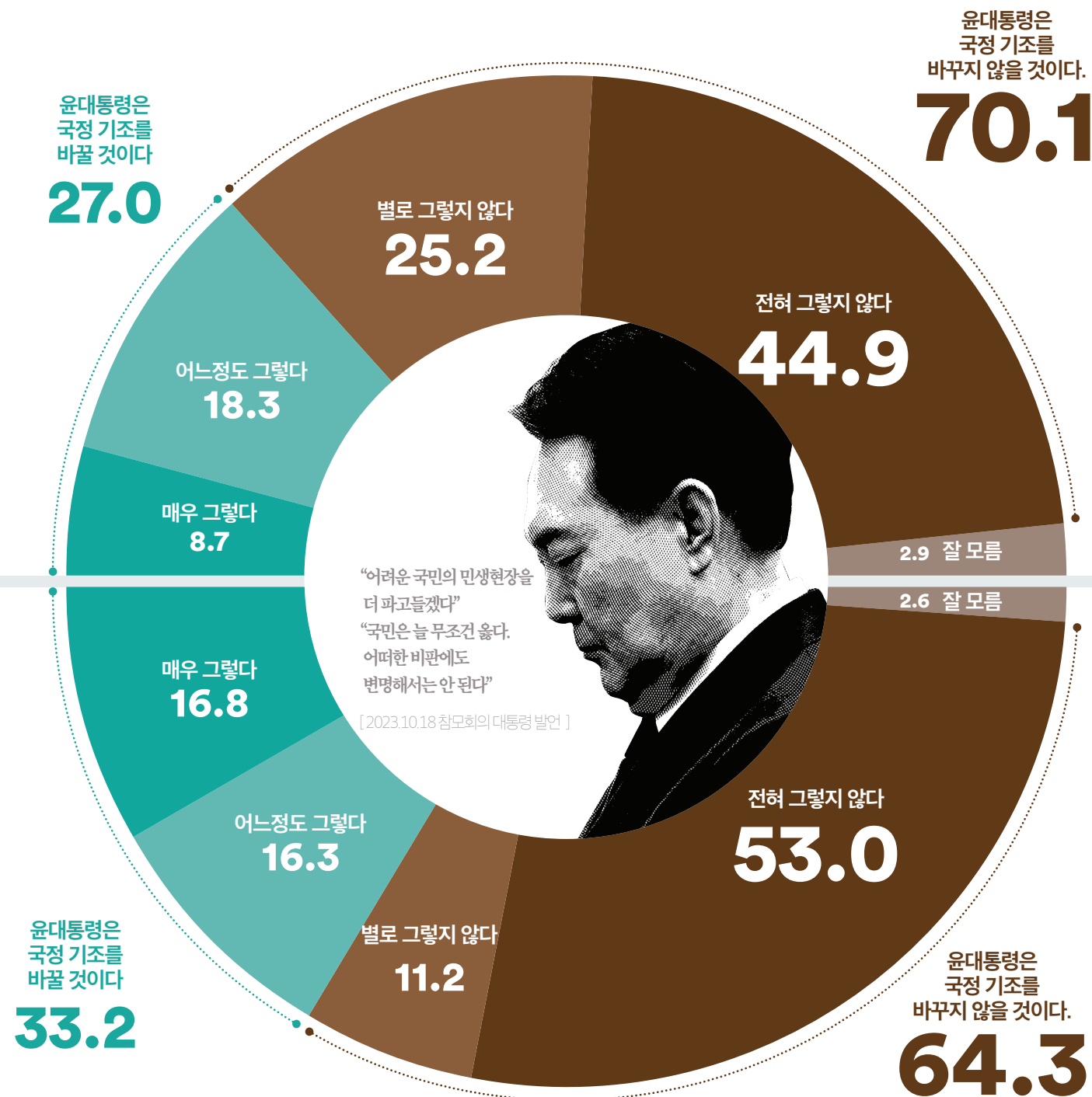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

Q.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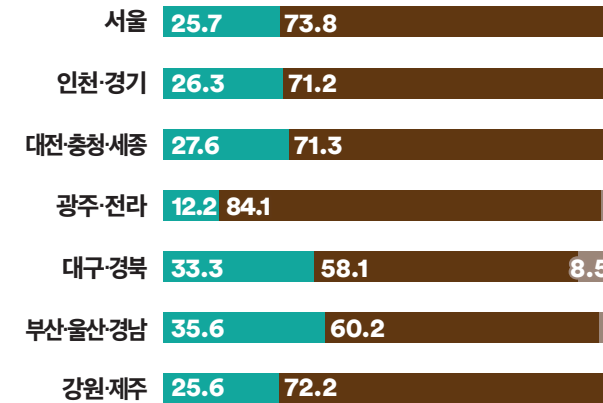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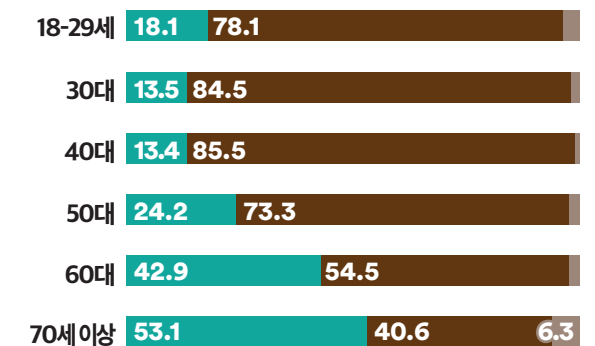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그렇지 않다(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CATI 조사의 모든 권역, ARS 조사의 수도권, 충청, 호남, PK 권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과 무당층, 중도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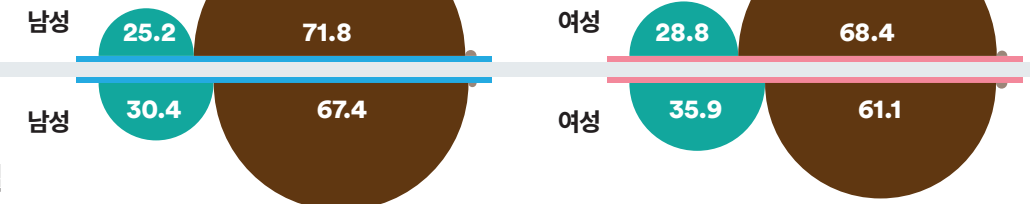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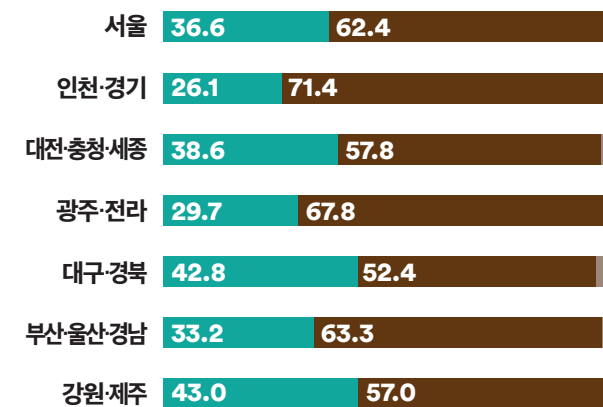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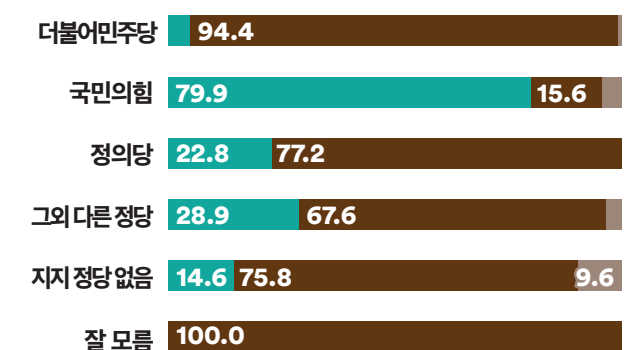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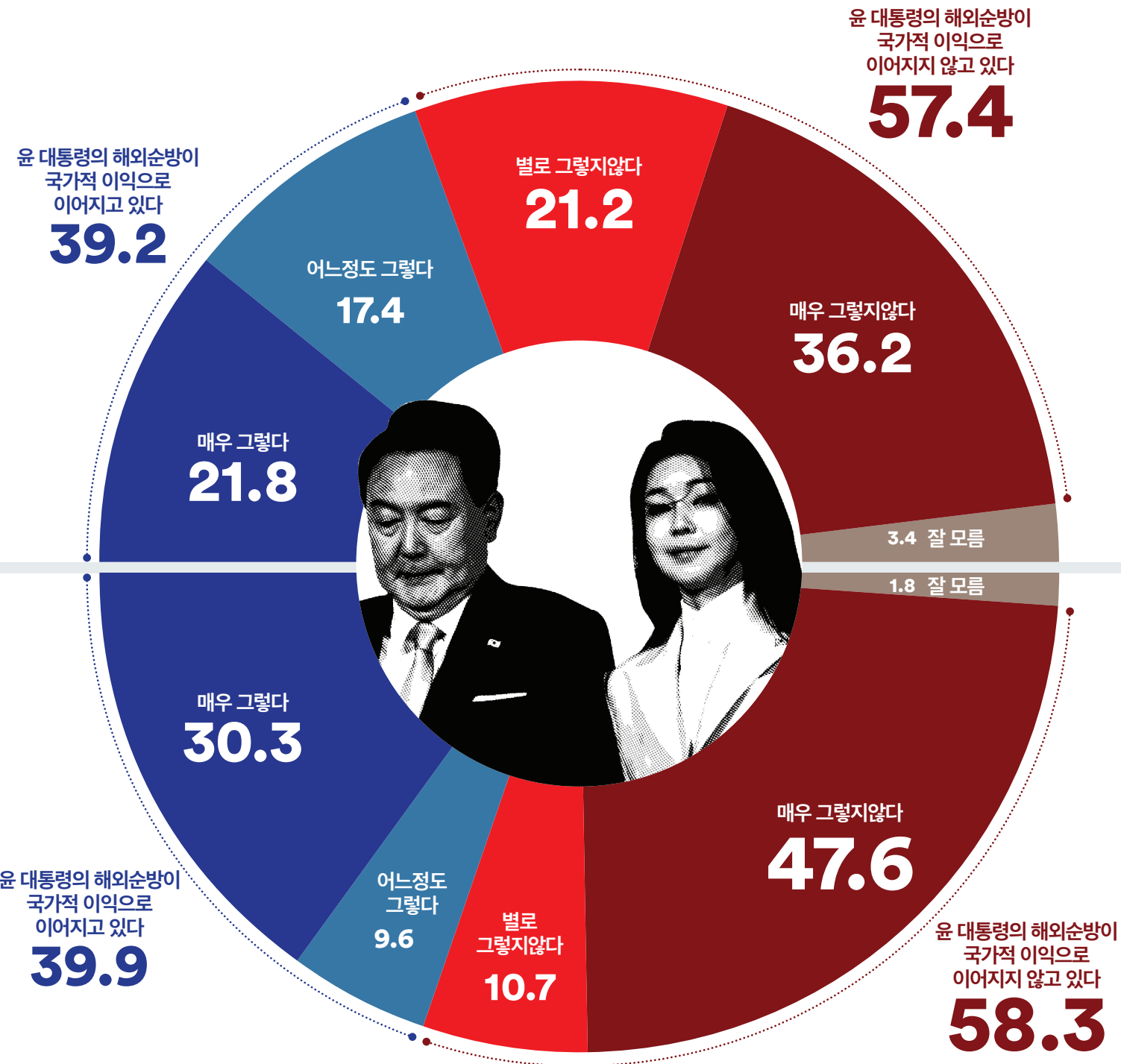


국정기조를 바꿀 것이다 (Teal)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Brown)
모르겠다 (Gr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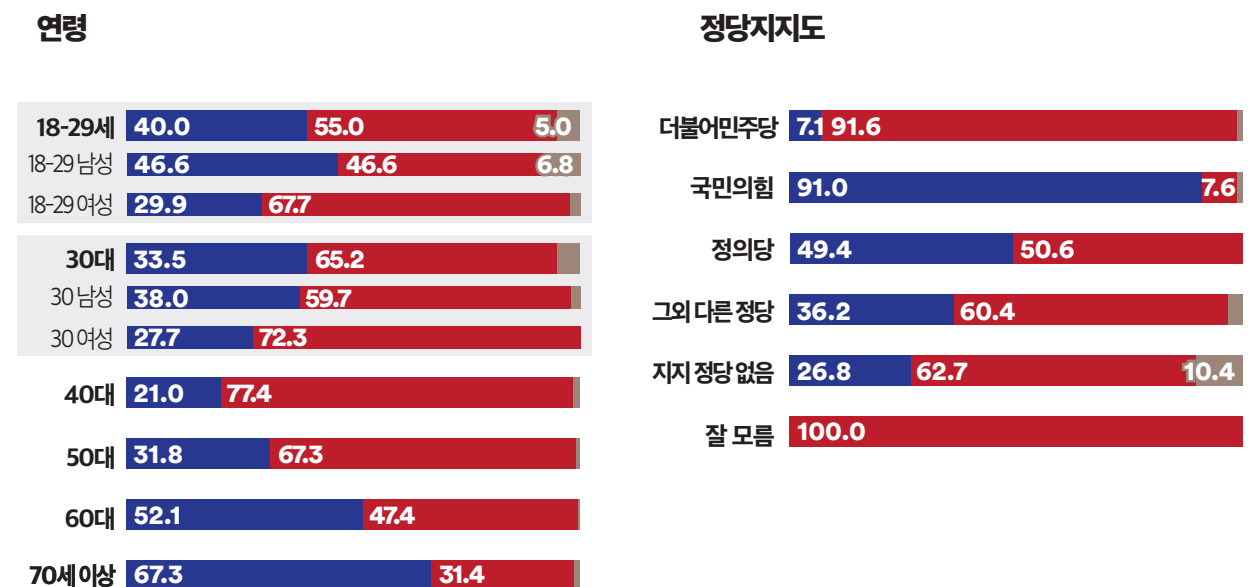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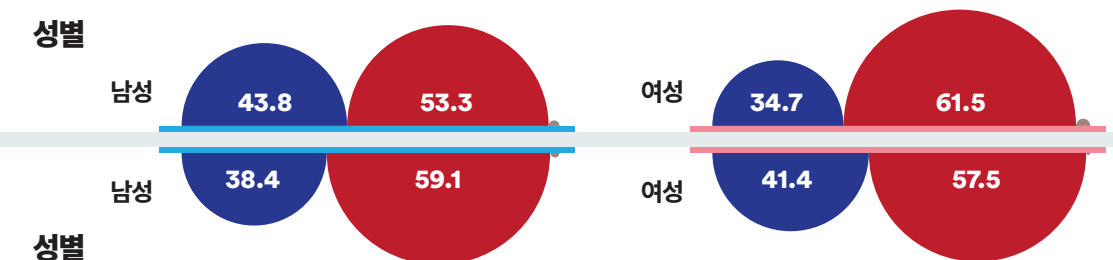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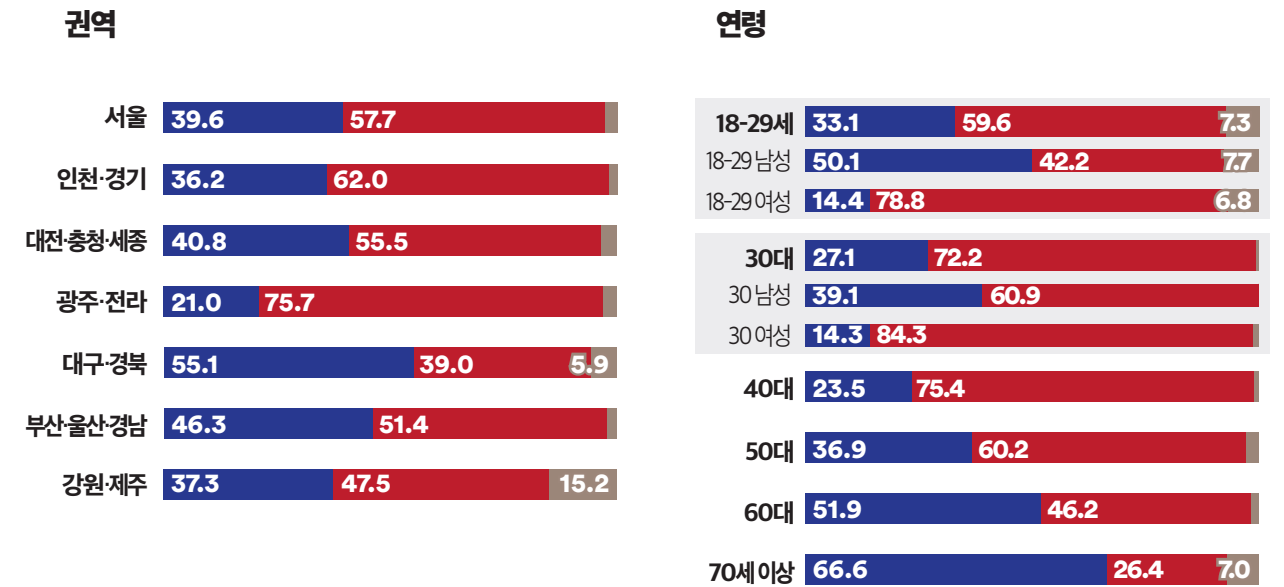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고 오는 11월, 12월에도 유럽 2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이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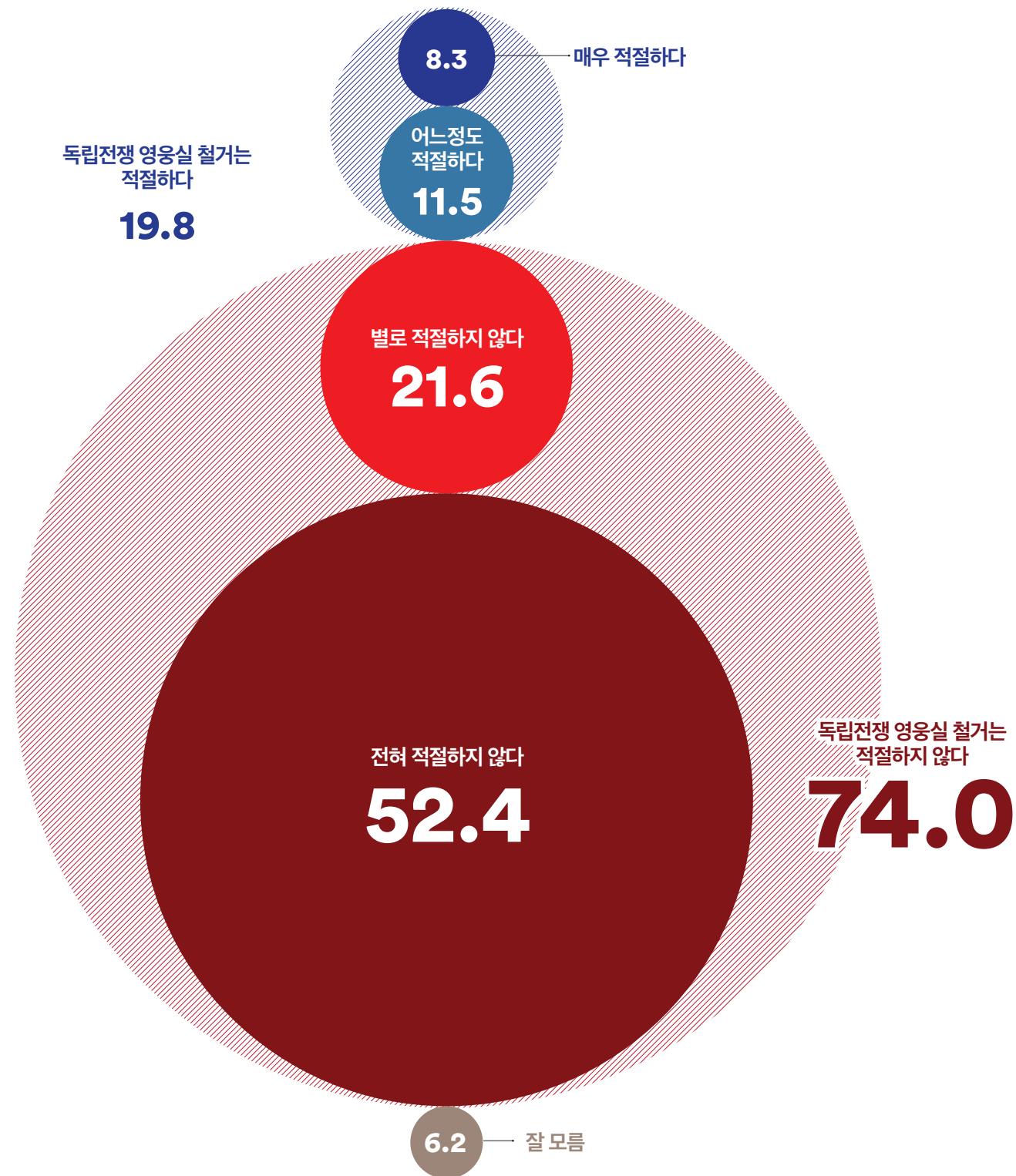
두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국가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TK권과 ARS 조사의 강원·제주 권역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앞섰
30-50대(CATI 18-29세 포함)는 '그렇지 않다', 70세 이상은 '그렇다'는 응답 우세



순방이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방이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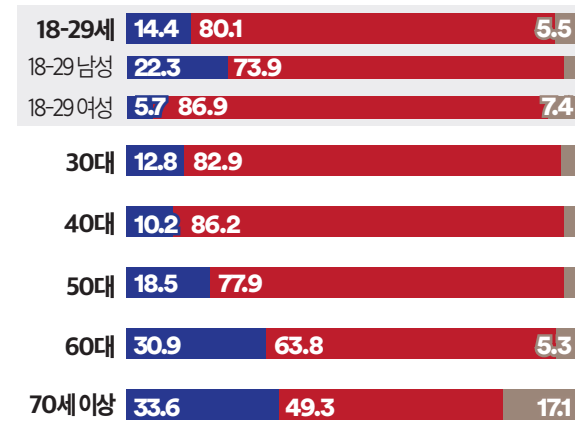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Q. 지난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김좌진, 안중근 등 독립운동 인사들을 기리는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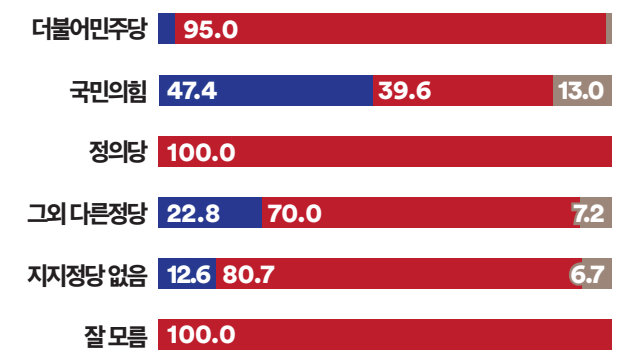


육사의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70세 이상: '부적절'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하다' 앞섬, 보수층은 '적절하지 않다'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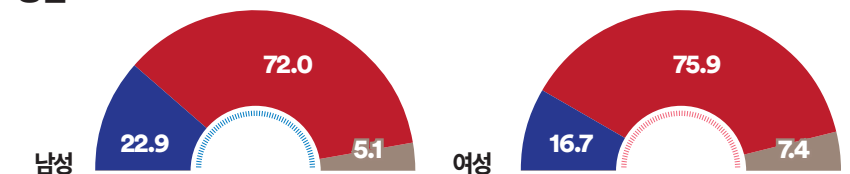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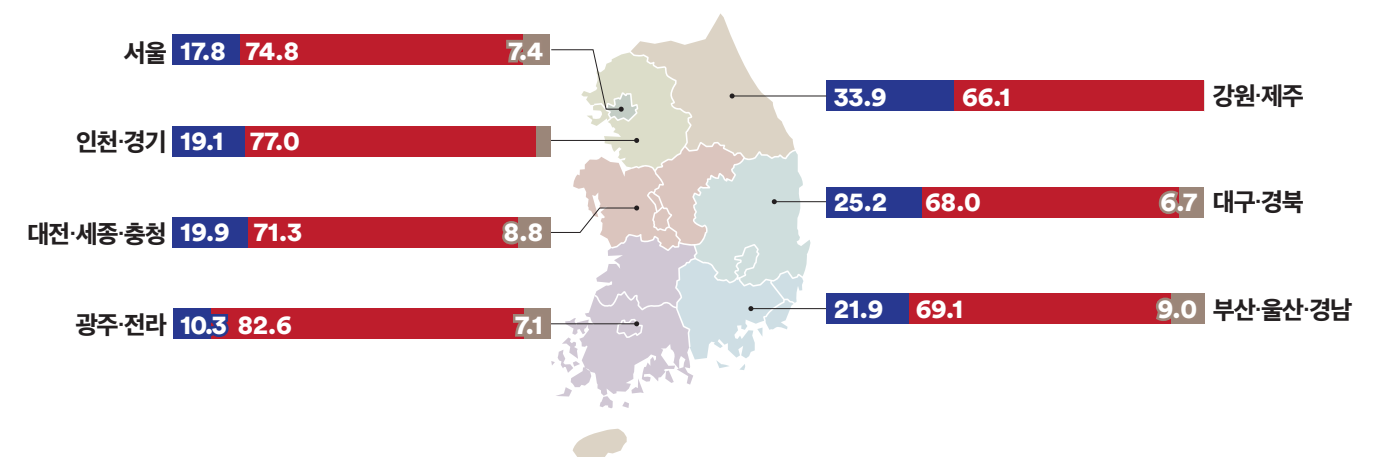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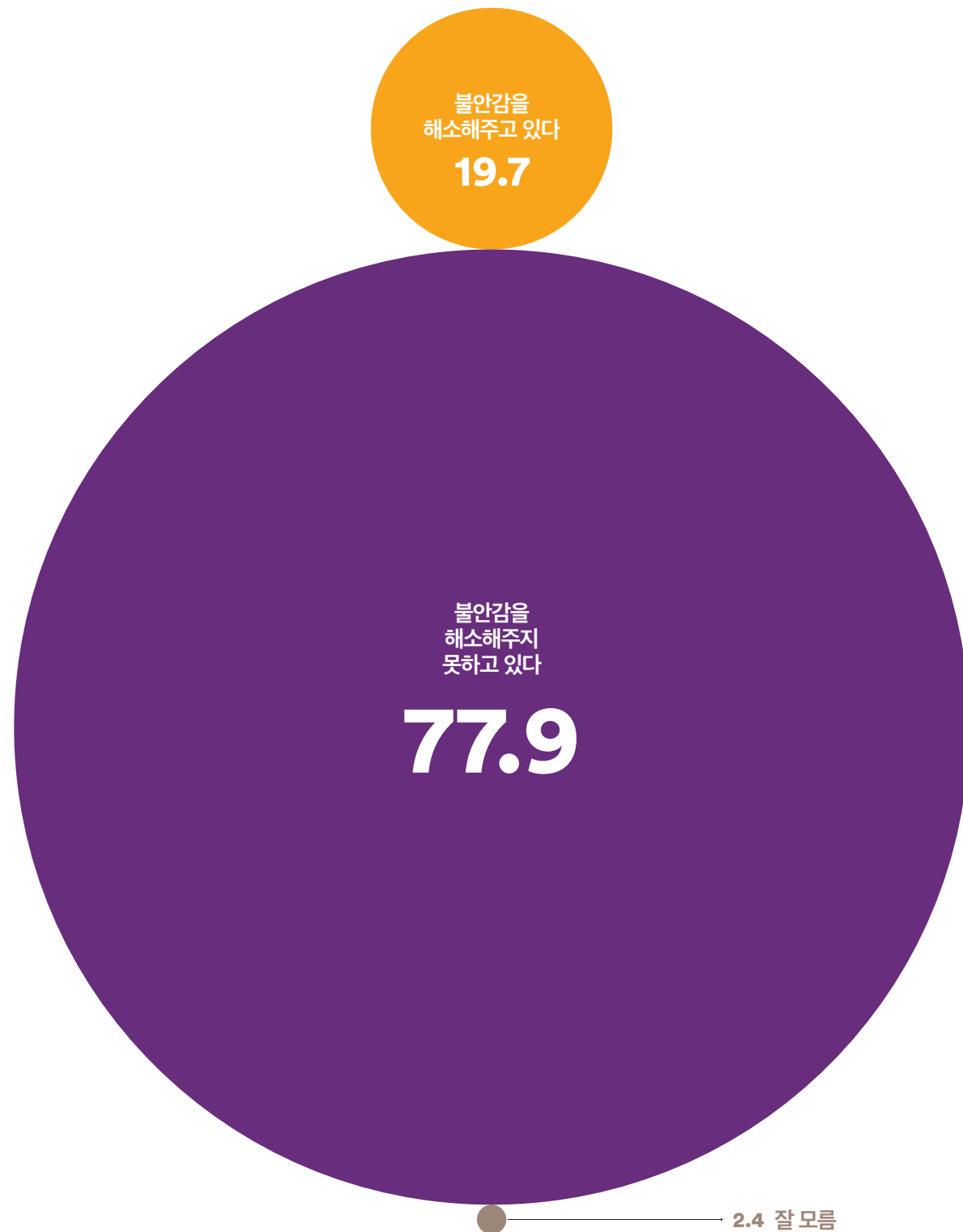
권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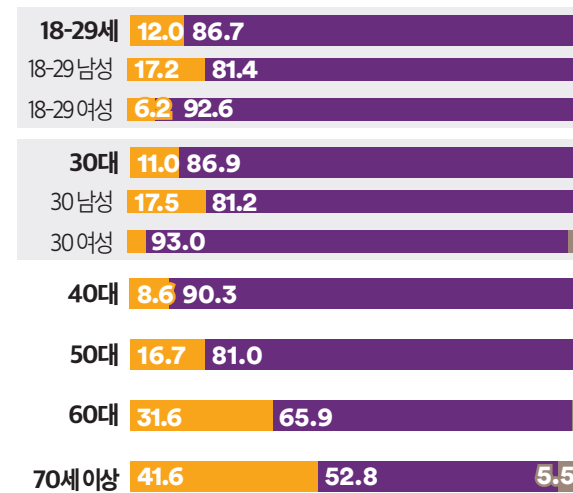
삼중 수소 농도 증가와 우리 정부 입장

Q.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검출된 삼중 수소 농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검출 농도가 낮아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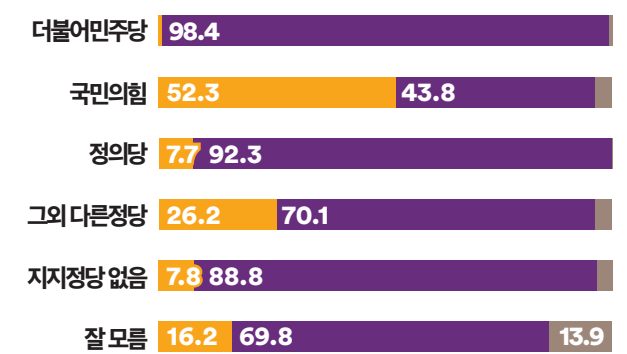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섬,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해당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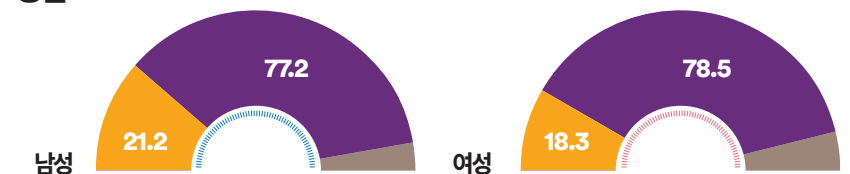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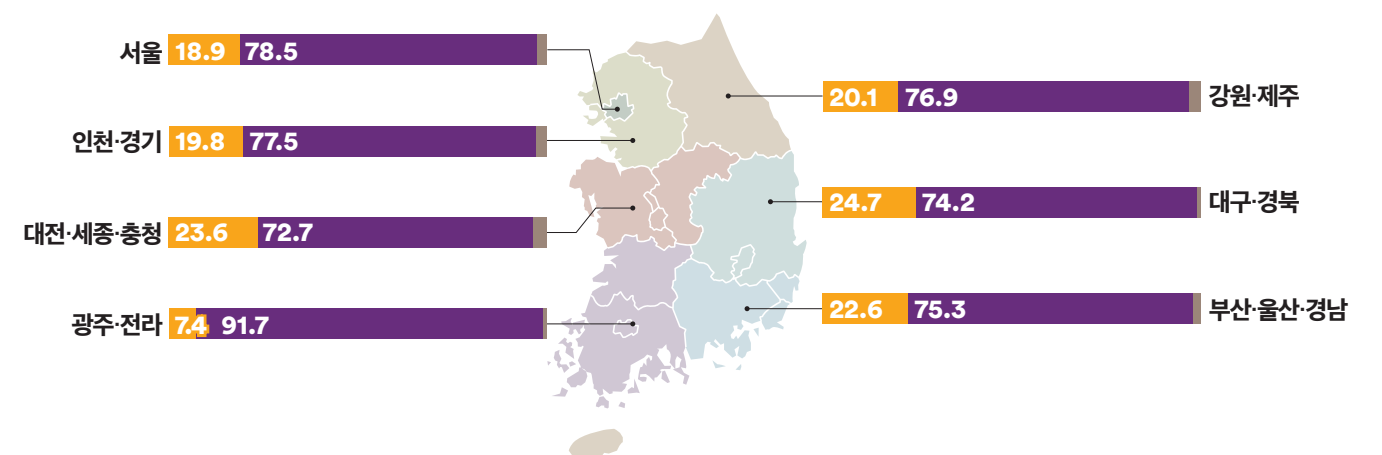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있다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10월 종합 분석



CATI & ARS

정례조사 기준 CATI $n=4047$

정례조사 기준 ARS $n=4015$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10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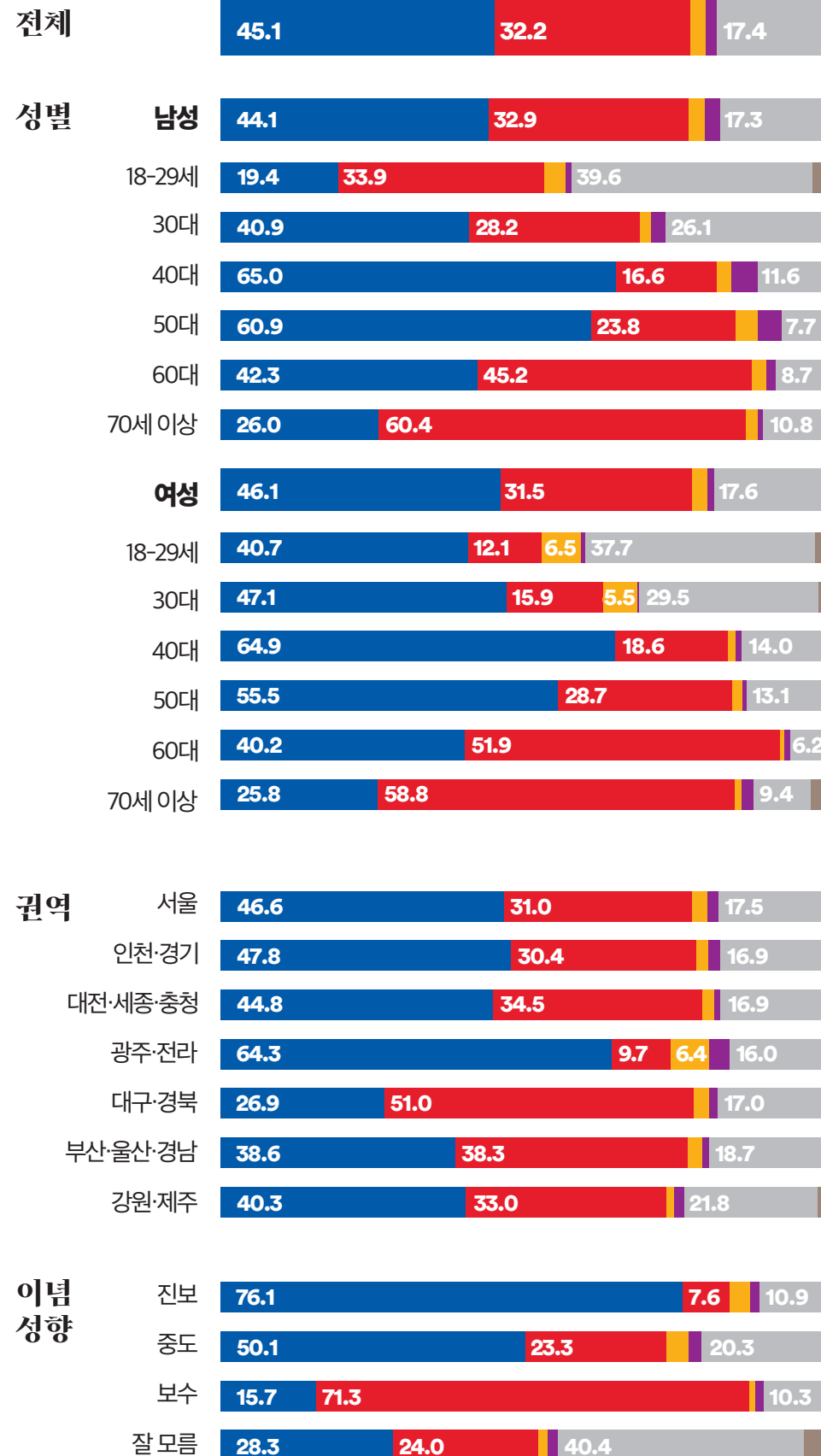
CATI

정례조사 기준 n=4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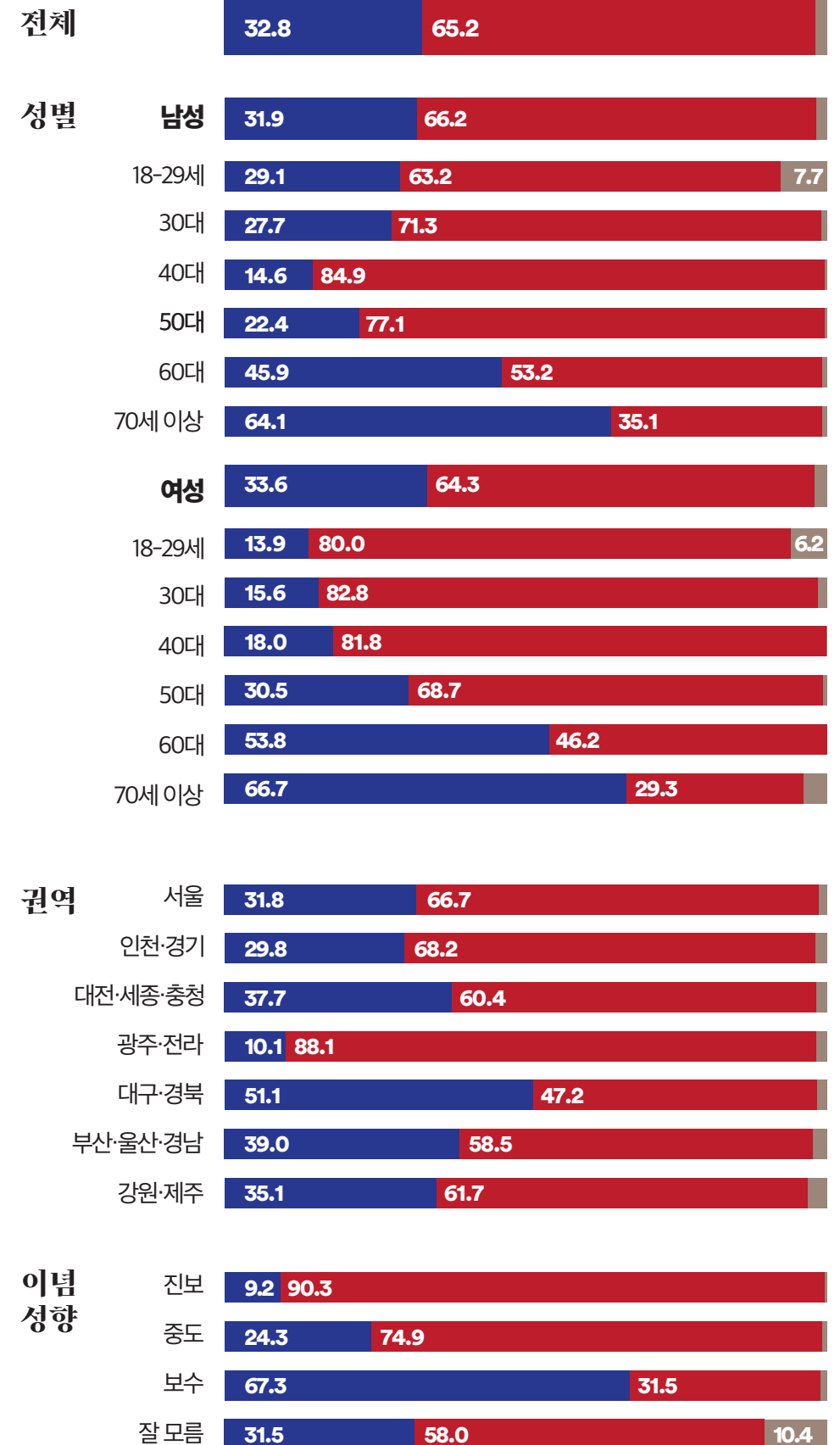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10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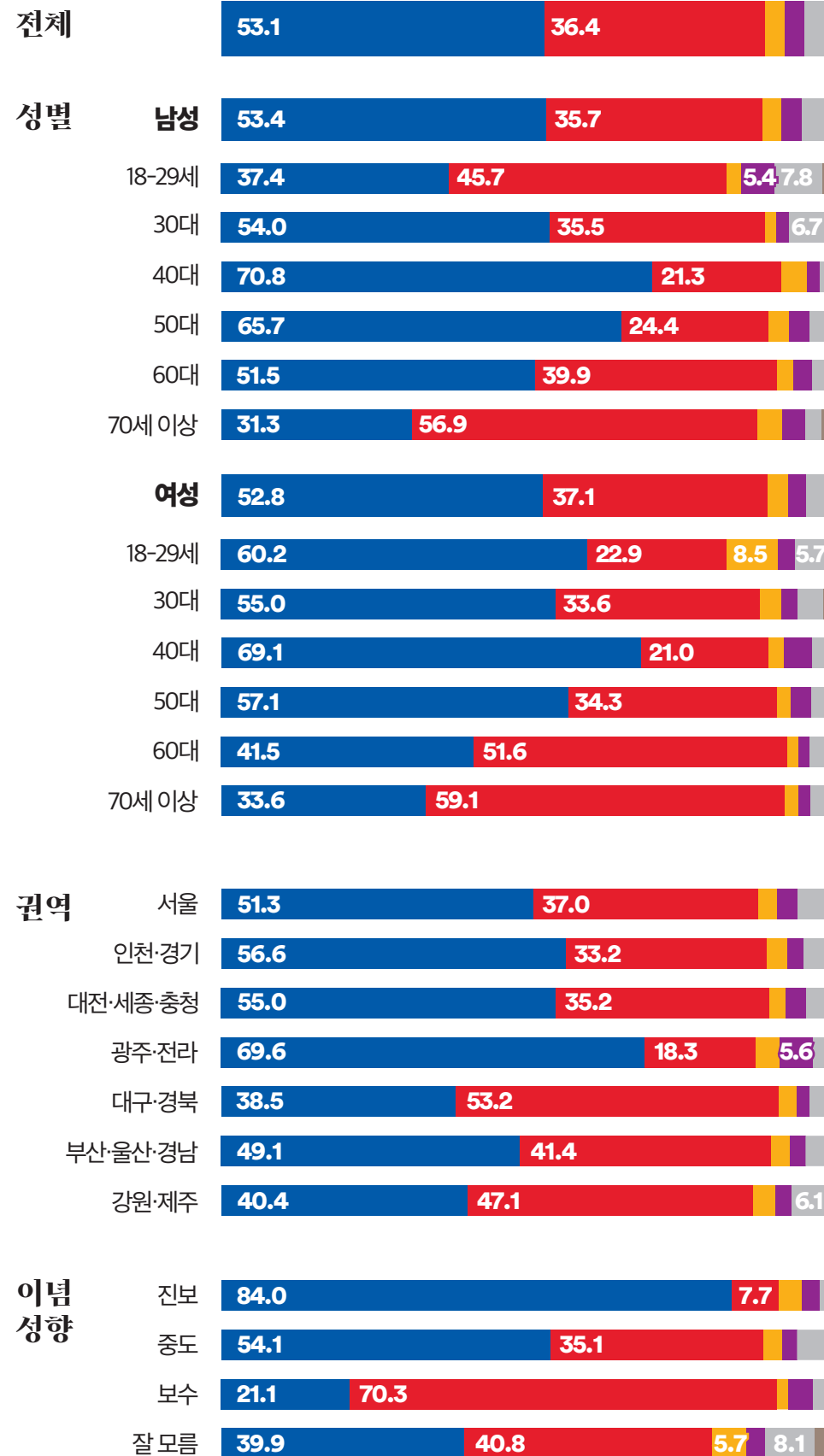
ARS

정례조사 기준 n=4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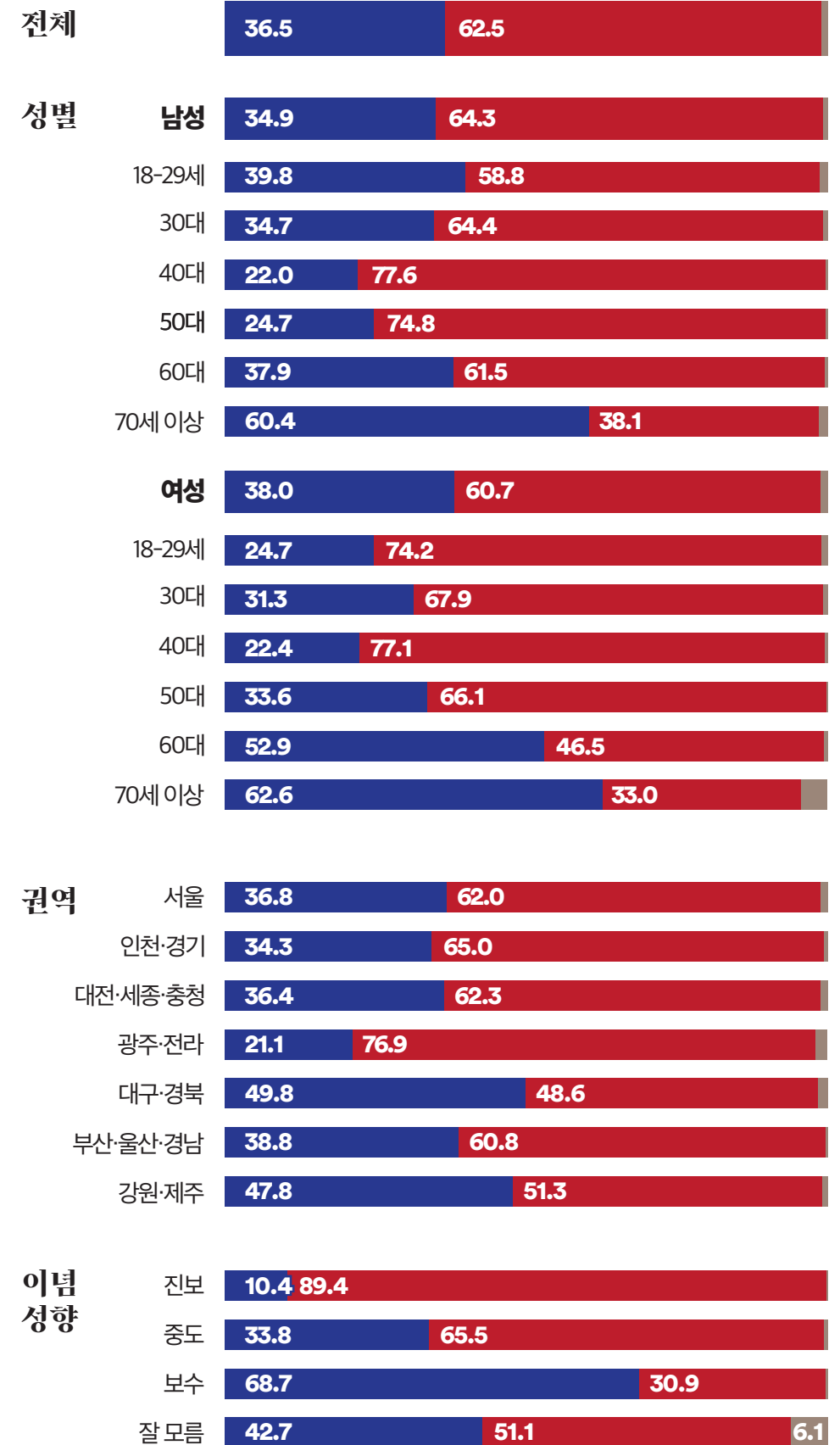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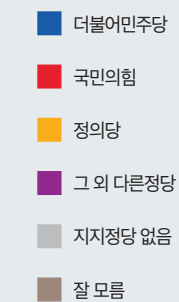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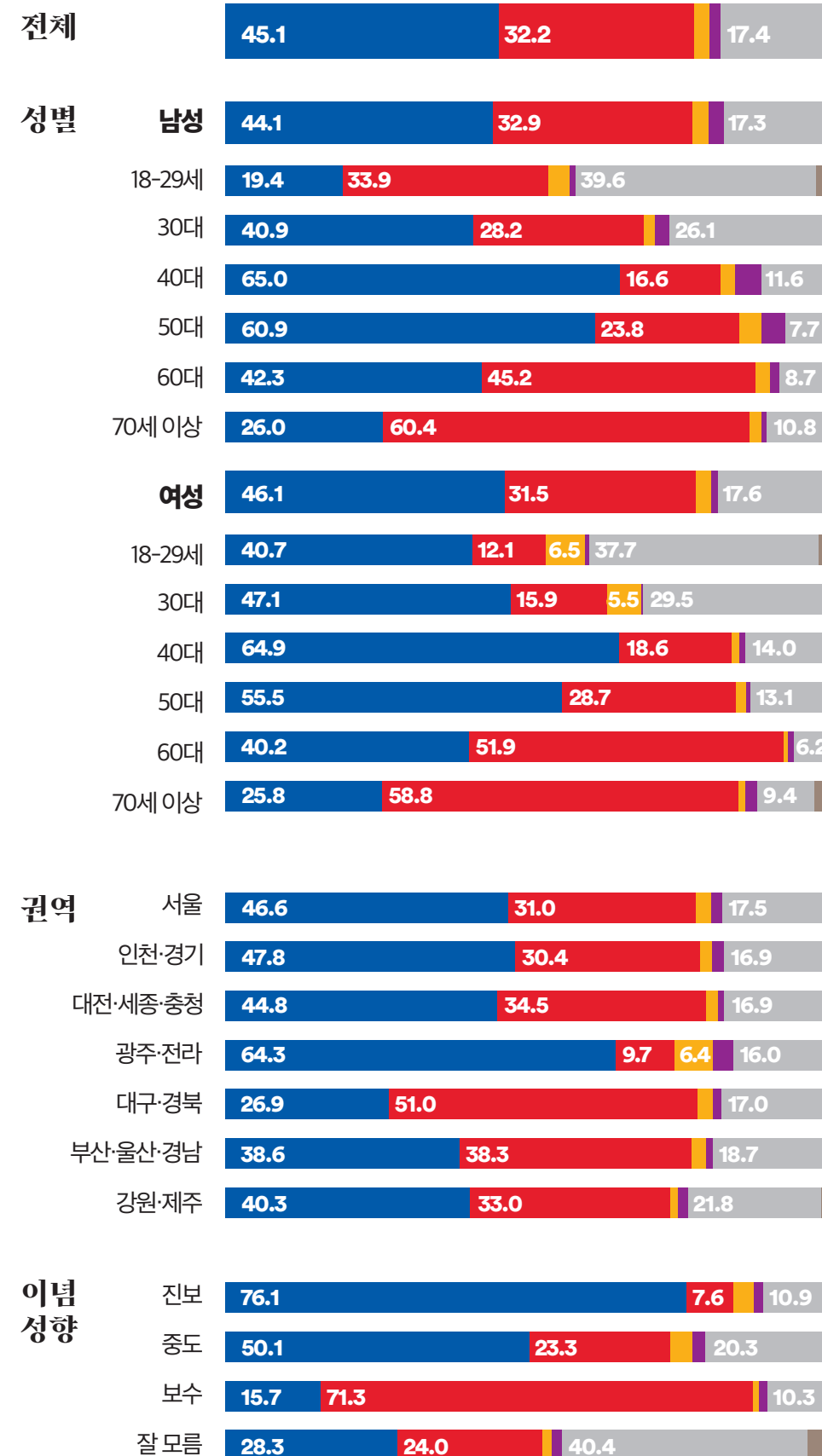
10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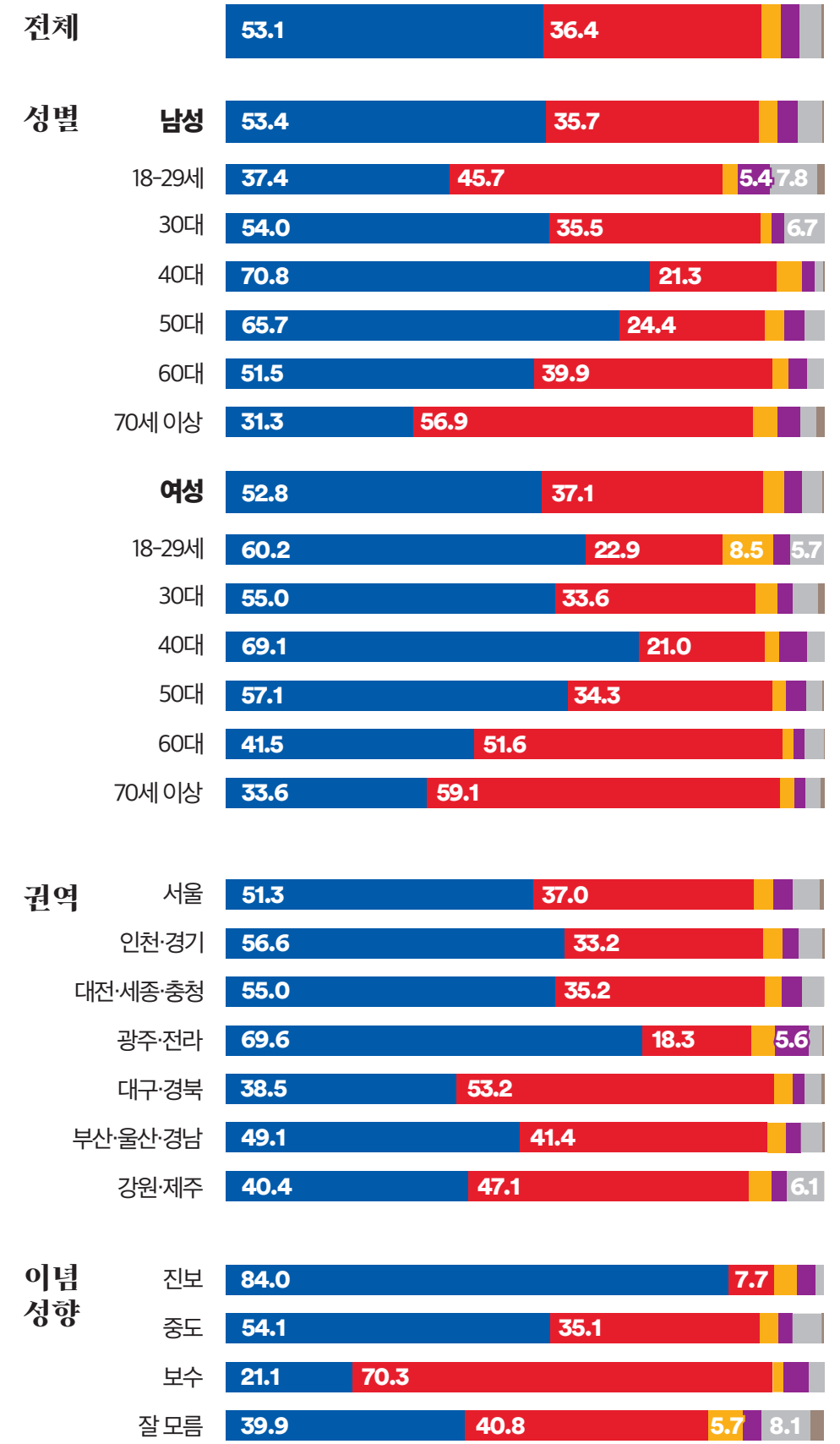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47
정례조사 기준 ARS n=4015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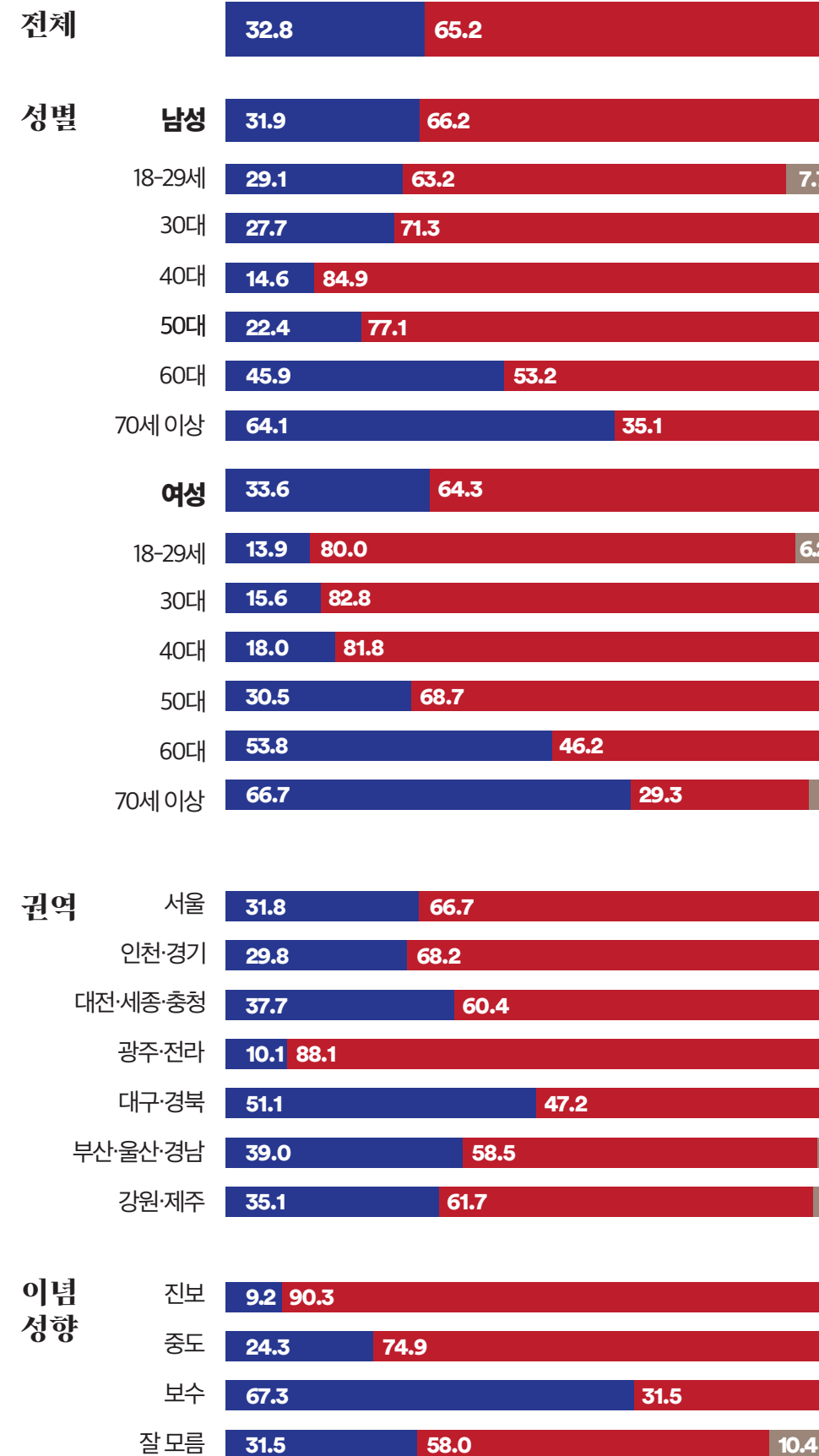
10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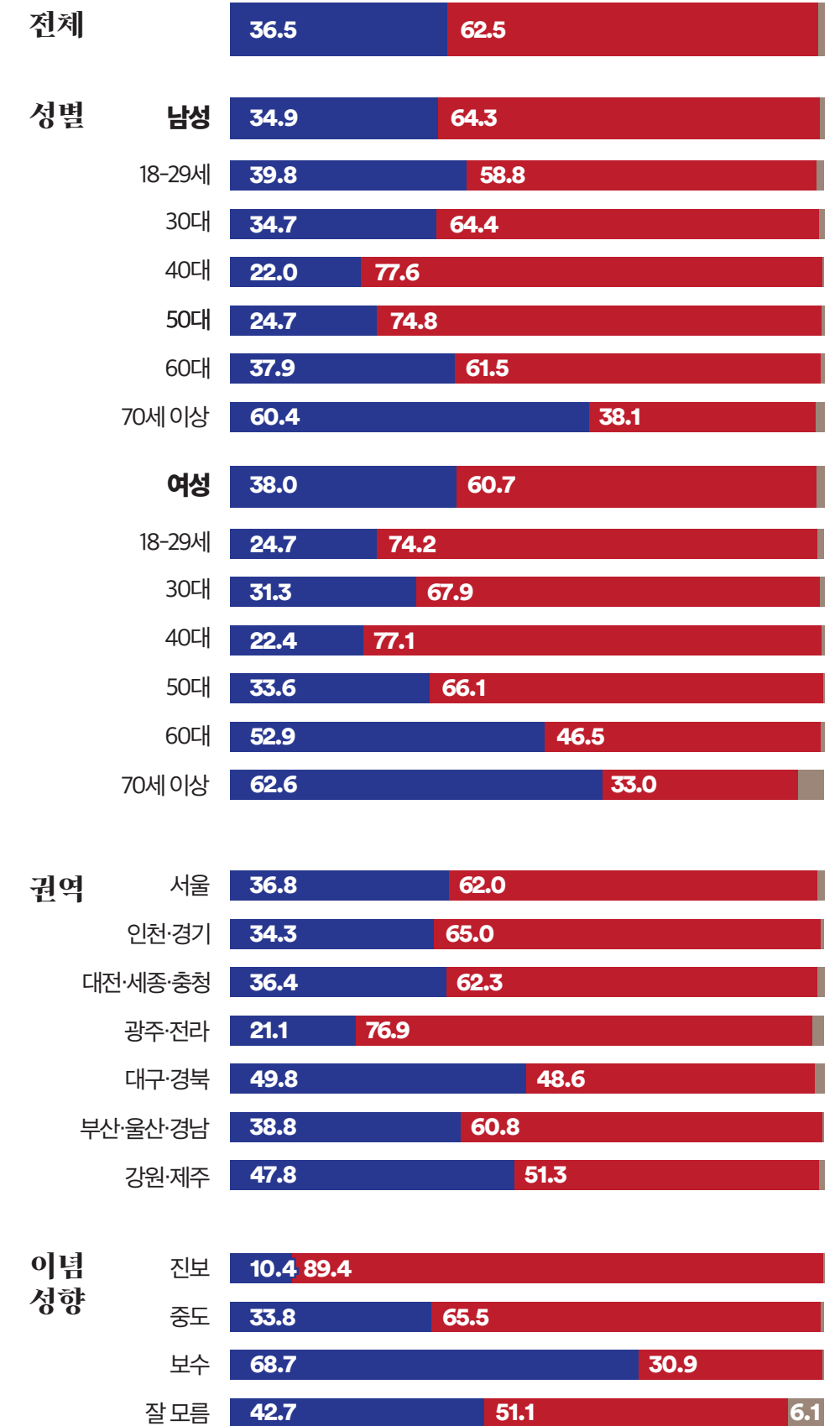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47
정례조사 기준 ARS n=4015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CATI



ARS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1_02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